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성북문화재단 달빛마루도서관>

문학의 전당, 성북에서 시를 만나다.

운영기간 | 2015. 10. 02.~28.

내　　용 | 1차 - 일제강점기 한국의 시, 그리고 한용운을 만나다.

2차 - 현대문학 속 성북을 만나다

성북문화재단(달빛마루도서관)

장소 성북예술창작터

강사소개

고명철 문학평론가 — 1차. 일제강점기 한국의 시, 그리고 한용운을 만나다

현직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학력 성균관대학교 국문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박사
수상 1998 – 월간문학 신인상
1999 – 문학과창작 신인상
2006 – 제11회 고석규비평문학상
2011 – 제12회 젊은평론가상
저서 리얼리즘이 희망이다 외 다수

2차. 현대문학 속 성북을 만나다 — 권혁웅 시인

현직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학력 고려대학교 국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박사
수상 1997 –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2000 – 제6회 현대시 동인상
2005 – 제3회 애지문학상 문학비평부문
2006 – 제4회 유심문학상 평론부문
2006 – 제38회 한국시인협회상
2010 – 제15회 현대시학 작품상
2012 – 제12회 미당문학상
저서 마징가 계보학 외 다수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 성북구 '길 위의 인문학' 특강 강의안(10/2)

일제강점기 한국현대시의 주요 쟁점

고 명 철
(문학평론가, 광운대 국문과 교수)

1. 근대전환기의 시가(詩歌)-개화기·애국계몽기

근대문학의 형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전근대적 시가(詩歌) 문학의 양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가(詩歌) 양식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하여 기존 한시(漢詩)·시조·가사·잡가·민요 등의 전통적 시가(詩歌)들이 여전히 이 시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조선이 직면한 반봉건과 반제국주의의 이중의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하나로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하고, 근대적 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표현 욕구들이 개화가사와 창가(唱歌)와 같은 새로운 시가 문학으로 널리 불리워진다.

우선, 개화가사의 경우 조선의 근대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낸다. 가령, <대한매일신보>에서 이른바 '개화가사'로 불리우는 600여편의 시가들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사회등(社會燈)'에 발표된 애국계몽류의 가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강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근대적 개혁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가 하면, 창가는 전통적 시가양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 시기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기독교 찬송가의 양식을 결합하였다. 최남선의 <경부텰도노래>(1908)로 이후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창가는 근대적 교육을 담당한 학교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다. 그 중 애국독립의 주제를 담은 창가들은 주로 <독립신문>을 널리 퍼지는데,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적 문명 개화가 핵심적 내용이었다.

대조선국 건양원년 자주독립 기뻐하세
천지간에 사람되어 진충보국 제일이니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인민들을 사랑하고 나라기를 높이 다세
— 최돈성의 <애국가>

최돈성의 <애국가>는 <독립신문> 창간호에 실린 것으로 이 시기에 불린 창가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전근대적 시가 문학 중 가사(歌詞)의 4·4조 4음보의 율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선을 향한 애국과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가는 일제에 의한 일본식 창가의 보급과 일제의 식민통치에 의한 억압, 그리고 일본의 통속적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과 결합하면서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개화가사와 창가라는 새로운 시가 문학의 양식을 통해 이 시기의 현실을 담아내면서 근대적 자유시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시가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민요를 통한 시대의식의 반영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한 민요들이다. 다음의 민요는 동학농민전쟁에서 패배한 농민의 절망과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한 전봉준의 역사적 희생을 노래하고 있다.

새야 새야 녹두새야 웃녘 새야 아랫녘 새야
전주 고부 녹두새야 함박 쪽박 열나무 후여

새야 새야 녹두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靑包) 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八王) 새야 너 무엇하러 나왔느냐
솔잎 댓잎 푸릇푸릇 하절(夏節)인가 하였더니
백설이 펄펄 헛날리니 전 건너 청송녹죽(靑松綠竹)이 날 속인다
— <파랑새 노래> 부분

동학농민군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리워진 <파랑새 노래>는 전봉준을 상징하는 녹두의 역사적 희생의 슬픔과 이 시기 반봉건·반제국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민요들이 민중들 사이에 불리워졌다. 민요의 특성이 잘 말해주듯, 민요는 오랫동안 민중들 사이에 입으로 전해오면서 민중들이 직면한 사회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한다. 특히 민요는 민중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쉬운 가락과 반복적 리듬을 통해 노래한다. 이러한 민요의 양식이야말로 근대전환기의 혼란에 놓인 민중들의 생활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시가 양식 중 하나인 것이다. 이 시기 반일 의병투쟁과 관련한 민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계몽주의 문학의 성립: 신체시, 근대적 서정시로의 이행-1910년대

이 시기의 시문학은 본격적인 근대적 서정시의 면모를 보이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인다. 아직도 애국계몽기에서 주류를 이룬 개화가사와 창가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문명개화를 중심으로 한 시대정신을 드러내는 이른바 '계몽적 서정'의 시문학이 발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체시(新體詩)'이다. '신체시'란 명칭은 일본의 동경대 교수들이 편찬한 <신체시초(新體詩抄)>에서 빌려온 것으로, 최남선과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그들의 계몽적 의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전통적 시문학의 양식과 다른 새로운 시문학의 일환으로 '신체시'를 발표한다. 따라서 신체시는 애국계몽기의 시가들과 그 주제의식 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그것을 전달하는 형식 면에서는 애국계몽기의 시가들보다 형식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신체시는 근대적 서정시의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 과도기적 시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남선의 일련의 신체시들은 이러한 신체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텩-ㄹ 썩 텩-ㄹ 썩 쏴-아
때린다 부슨다 무너버린다
태산(泰山)같은 높은뫼 집태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슨다 무너버린다
텩-ㄹ 썩 텩-ㄹ 썩 텩 튜르릉 꽉
ㅡ <해(海)에게서 소년에게> 부분

최남선의 대표적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바다로 상징되는 근대문명의 새로운 위력을 보여준다. 역동적으로 치는 파도의 모습을 전통적 시가의 정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식의 자율성을 통해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계몽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최남선의 이러한 시적 표현은 그의 <태백산 시집>에 실린 여러 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중 <태백산가>의 부분이다.

지구의 산ㅡ산의 태백이냐?
태백의 산ㅡ산의 지구냐?
시인아 이를 묻지 말라
그것이 긴하게 찬송할 것 아니다.

하늘ㅅ면은 휘둥그렇고 땅ㅅ바닥은 펑퍼짐한데,

우리 님ㅡ태백이는 우뚝!

독립ㅡ자립ㅡ특립(特立).

송곳? 화저(火箸)? 필통의 붓?
영광의 첨탑?
피뢰침? 기ㅅ대? 전곤목(電棍木)?
온갖 아름다운 용(勇)이 한데로 뭉치어 된 조선남아의 지정대순(至精大醇)의 큰 팔뚝!
ㅡ <태백산가> 부분

최남선은 한민족(韓民族)의 신령스러운 '태백산'을 노래함으로써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민족 정기(精氣)를 회복하고자 한다. '태백산'은 그에게 민족의 시원(始原)이면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민족의 성소(聖所)인 것이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통해 근대문명의 적극적 수용을 담아내고 있다면, <태백산가>가 수록된 <태백산시집>을 통해서는 민족의 신성성을 극단적으로 숭배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편협한 애국주의와 국수주의(國粹主義)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시기의 신체시가 갖는 과도기적 면모이다. 근대전환기의 무렵 근대문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계몽의지에 투철한 지식인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이 근대문명의 수용이 일본제국주의에 국권을 상실당한 식민통치와 겹쳐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새로운 근대문명을 수용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인데, 계몽적 지식인들은 이것을 쉽게 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식민통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의 민족적 신성함과 우수성을 부각시킨다. '신체시'는 최남선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계몽적 지식인의 이 같은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의 시문학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근대적 서정시로 이행해가는 특징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신체시가 중심인 계몽적 서정의 시들이 주로 발표되었지만, 이후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꽃이 필 근대적 서정시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현상윤과 최승구는 그 대표적 시인들이다. 이 둘은 모두 일본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발행한 <학지광>의 편집에 참여하면서 19세기말 붐을 이룬 세기말의 환멸의 정서를 그 당시의 주권을 상실한 민족 현실의 암울한 정서로 표현한다.

에덴의 달 밝은 빛아 비치는 곳 따로 있고
생명의 샘 맑은 물아 흐르는 곳 가렸더냐
같은 하늘 같은 땅에
이 동산 뿐 아득하고 이 백성 뿐 목마름은
불평등이 아니라고
변명할 말 남았더냐?

— 현상윤의 <실락원> 부분

이 시기에 낯익은 신체시와 확연히 다른 시 형식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제의식 면에서도 신체시와 뚜렷이 구분되는 면을 보인다. 비록 시인의 현실인식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시인의 시적 감성이 근대적 서정시의 미의식을 담아내는 데 미흡하지만,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세계에 대한 슬픔과 환멸의 정서를 자유로운 시 형식으로써 표현하고자 한 '근대적 서정시'의 징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근대문학의 성장: 근대적 서정시의 탐색과 확립-1920년대 및 카프문학의 도래

'동인지 시대'로 활발히 모색된 근대적 서정시는 1920년대 초반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낭만적 성향이 대부분을 이룬다. 여기에는 3·1운동의 현실적 패배로 인해 널리 퍼진 우울과 비애의 문학적 정서를 간과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아———모든 이들이여 당신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이까
무엇을 찾으러 오시었나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찾으러
어디로 당신들은 가시렵니까
고요히 별 흐르는 '정적'의 나란가요
푸르게 물굽이치는 '탄식'의 동넨가요
해는 떨어지고 바람은 이는데
아———당신들은 어디로 가시려나요
— 박종화의 <흑방비곡> 부분

'정적'과 '탄식'으로 가득찬 조선의 현실을 암울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목소리는 <백조>와 <폐허>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근대적 서정시의 단면을 살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부터 한국의 현대시는 시적 화자의 개성적 목소리를 자유로운 내재율의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의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와는 그 주제의식과 형식 면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본격적 자유시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비록 감상적 낭만주의로 인해 시적 화자의 감성이 절제되지 못한 채 감정의 과잉이란 문제점을 낳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탄식의 이면에는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 곤란하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그 대표적인 서정시이며, 김소월이 추구한 '민요조 서정시'는 민족의 전통적 정한(情恨)의 심상을 근대적 서정시로 승화한 빼어난

시적 성취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의 <진달래꽃> 부분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 전통의 민요조 3음보의 율격을 기반으로 한 여성 화자의 이별의 정한(情恨)을 개성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슬프지만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식민지 현실의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는 조선의 현재적 모습에 대한 김소월 고유의 서정시의 아름다움이다.

그런가 하면, 한용운의 경우 불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고 사상가로서 그의 시는 불교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근대적 서정시의 완숙한 미의식을 보인다. 그는 1926년 <님의 침묵>이란 시집을 발표하는데, 그 시집 서문에 해당하는 <군말>에서 그의 시의 지배적인 심상인 '님'에 대해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고 하여, 종교적·철학적·민족적·일상적 차원을 두루 포괄하는 '님'의 의미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시적 진실을 형상화한다.

이 외에도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그 영향을 받은 프로문예이론의 도입으로 초기 신경향파의 특징을 띤 경향시(傾向詩)들이 발표되었다. 이후 이 경향시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사회주의 문예조직인 카프(KAPF)가 결성되면서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에 충실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해방의 시의 면모를 보인다.

4. 일제의 파시즘에 대한 시적 대응-1930년대

1930년대의 한국시문학사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시문학파'의 출현이다. 박용철, 김영랑, 신석정, 정지용 등이 주축이 되면서 1930년 3월에 창간한 시 전문지 <시문학>은 카프가 주도한 이념 위주의 정치성향의 시로부터 벗어나 언어의 미적 자율성에 초점을 두는 탈정치 지향의 순수서정에 바탕을 둔 시를 창작하고, 이에 대한 시 이론에 집중한다. '시문학파'의 시적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자연발생적인 순수서정을 노래했고, 둘째, 지적인 요소나 윤리적인 측면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했고, 셋째, 여성적이면서 섬세한 시적 언어를 구사했고, 넷째, 전통적 토속어를 자연스레 구사하였다. '시문학파'의 시인 중 김영랑은 그 대표적 시인으로서 시의 의미보다 한국어가 지닌 음악적 미의식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시적 대상에 대한 시인의 순수서정을 자연스레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문학파'의 시적 경향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도피처럼 보이지만, 순수서정에 대한 염원은 일제의 파시즘으로 타락한 정치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훼손된 인간의 서정에 대한 복원이야말로 억압적 정치에 대한 시문학 나름대로의 대응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서정주, 유치환 등의 '생명파'와 1936년 창간한 시 전문지 <시인부락>은 모든 생명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는 일제의 파시즘에 대한 시적 대응으로서 생명현상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긍정에 바탕을 둔 시 창작을 보인다.

한편, 이 시기 모더니즘 시의 등장은 일제의 식민지 독점자본주의로 인한 파행적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모더니즘론을 주도한 김기림은 이전 시기의 감상적 낭만성에 치우친 한국시문학과 카프의 정치적 이념 위주의 프로시에 대한 강한 부정의식을 띤 채 언어 예술과 문명 비판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아낸 모더니즘 시를 표방한다.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가 그 대표적인 시집이다.

13인의아해가도로를질주하오.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2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3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제4의아해도무섭다고그리오.
(중략)

(길은뚫린골목이라도적당하오.)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지아니하여도좋소.
— 이상의 <오감도 시 제1호> 부분

특히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이상의 시들은 식민지 시기의 한국문학사 전체를 통해 한국 모더니즘 시의 절정을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부호와 수식의 과감한 사용, 띄어쓰기를 무시한 의식의 흐름 등 초현실주의 시적 경향은 일제의 파시즘에 대한 지식인의 내적 정신의 분열을 통해 식민통치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비판적 색채를 띤 모더니즘 시의 대응을 가장 잘 보인다.

이상 외에도 김광균, 오장환, 장만영 등의 모더니스트들이 있었고, 그 중 정지용은 감정의 절제, 세련된 언어 미의식, 간명한 이미지의 구사, 전통과 현대의 결합 등으로 이상과 또 다른 한국의 모더니즘 시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이 시기 프로시들을 모은 <카프시집>이 1931년에 출간되면서 카프의 조직적 문예운동의 일환으로 프로시들이 씌어졌고, 카프 해산 이후 프로시들은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카프의 조직적 문예운동은 소멸됐으나, 임화, 박세영, 이찬, 이용악 등에 의해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반을 둔 프로시들은 지속적으로 씌어지면서 일제의 파시즘에 대한 시적 대응을 펼친다.

끝으로, 이 시기의 프로문학을 대변하는 임화, 순수문학을 대변하는 박용철, 모더니즘 문학을 대변하는 김기림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기교주의 논쟁은 1930년대의 한국시문학이 일제의 파시즘 하에서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문학논쟁이다.

5. 일제말의 친일 협력과 저항

일제의 파쇼적 군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황군위문작가단'이 구성되어 전선을 돌아본 후 조선의 주요 문인들은 1939년에 '조선문인협회'를 결성하더니, 1943년에는 단체의 명칭을 '조선문인보국회'로 변경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문학활동을 벌인다. 최재서가 주간인 <국민문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국책문학은 이 시기 한국문학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겨준다.

이 시기의 문학을 특징짓는 '국민문학'이란 용어는 일본제국주의의 국책(國策)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총동원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의 '국민'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치고, 일본어로 작품 활동을 하고, 일본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작품을 '국민문학'이란 이름으로 써야만 했다. 이광수를 비롯하여 김동인, 채만식, 최재서, 주요한, 김억, 김동환, 서정주, 모윤숙, 노천명, 최정희, 정인택, 박영희, 김기진, 유치진, 송영 등 대부분의 문인들이 일제의 국책에 협력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 가령, 일본어로 씌어진 최정희의 단편 <반도의 빛>(1945)과 서정주의 시 <무제>(1944)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은 '국민문학'의 실상을 잘 드러낸다.

> 남자의 힘은 위대한 것이라고 탄복했습니다. 남자의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졌습니다. 산을 헐어 바다를 만드는 힘도 남자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남자 앞에 머리를 안숙일 수 있습니까. (중략) 내 앞에 앉은 이 소년에게까지도 머리를 숙입니다. 소년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큰 힘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차를 타고 가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아귀처럼 달려드는 적 아메리카를, 영국을 때려 부술 비행기를, 대포를, 군함을 만들 위대한 힘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
> — 최정희의 <반도의 빛>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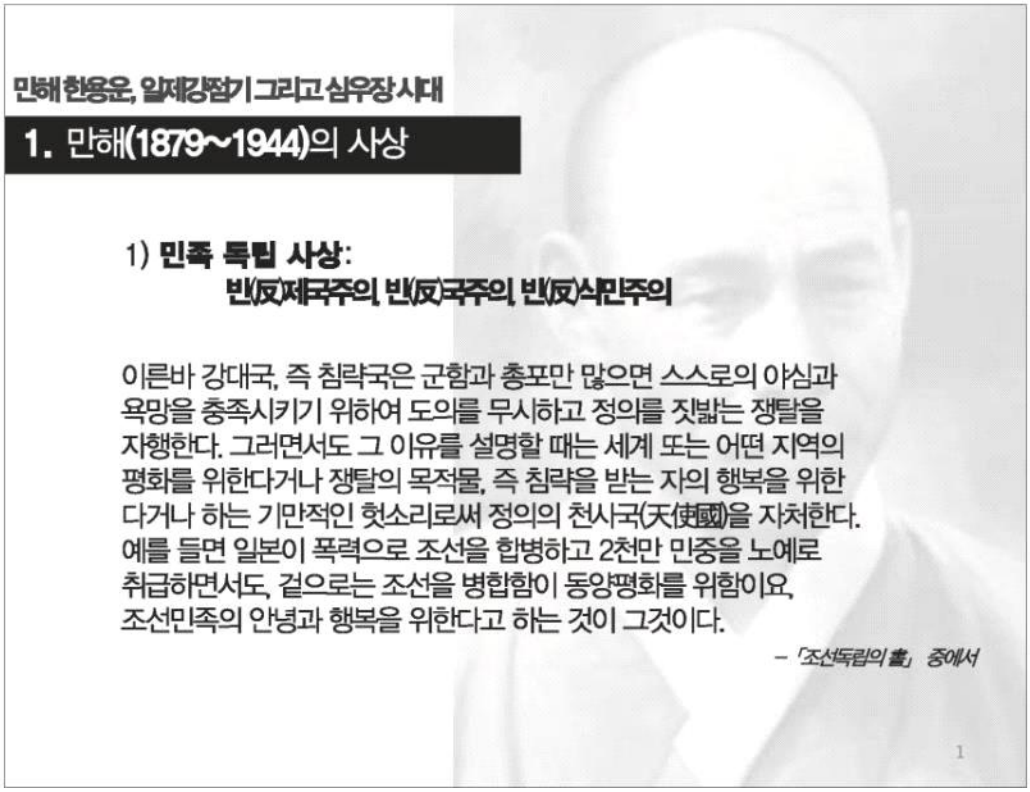
> 아아, 마음 즐겁도다, 마음 즐겁도다.
> 역사의 제물을 내 아니고 뉘 있으리.
> 어머님이시여 나도 또한 창을 들고 일어나
> 떠나겠습니다.
> 싸이판으로,
> 마킹다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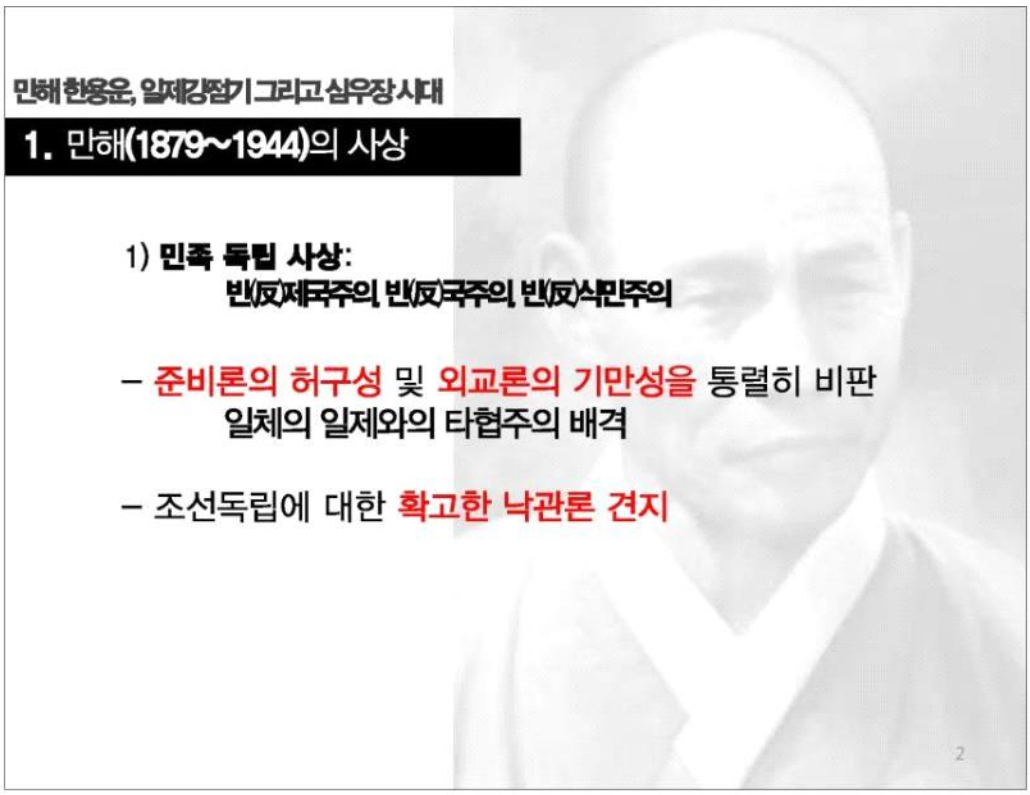
앗쯔로,
— 서정주의 <무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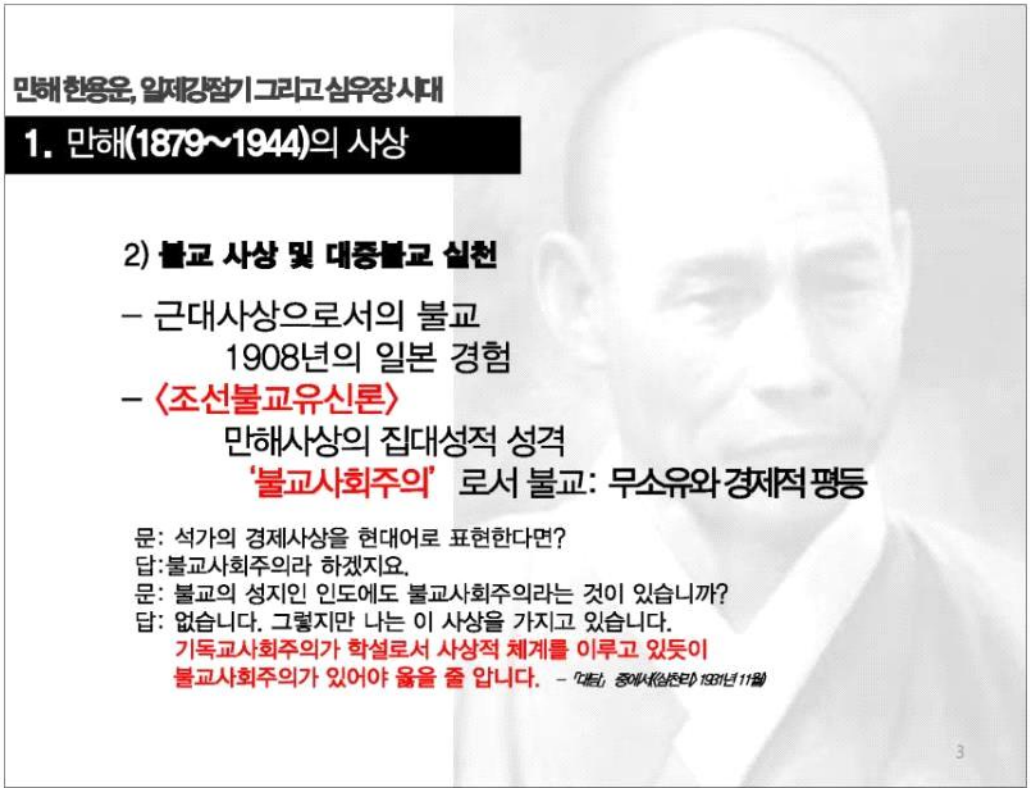
두 작품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식민침탈을 위한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최정희의 소설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의 힘을 조선의 여성이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서정주의 시에서는 이러한 전쟁에 참전하는 자식의 목소리를 통해 그 어머니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모두 이 시기 일본제국주의의 국민으로서 식민지 전쟁에 참전하는 정당성을 얻기 위한 국책문학의 충실한 수행이나 다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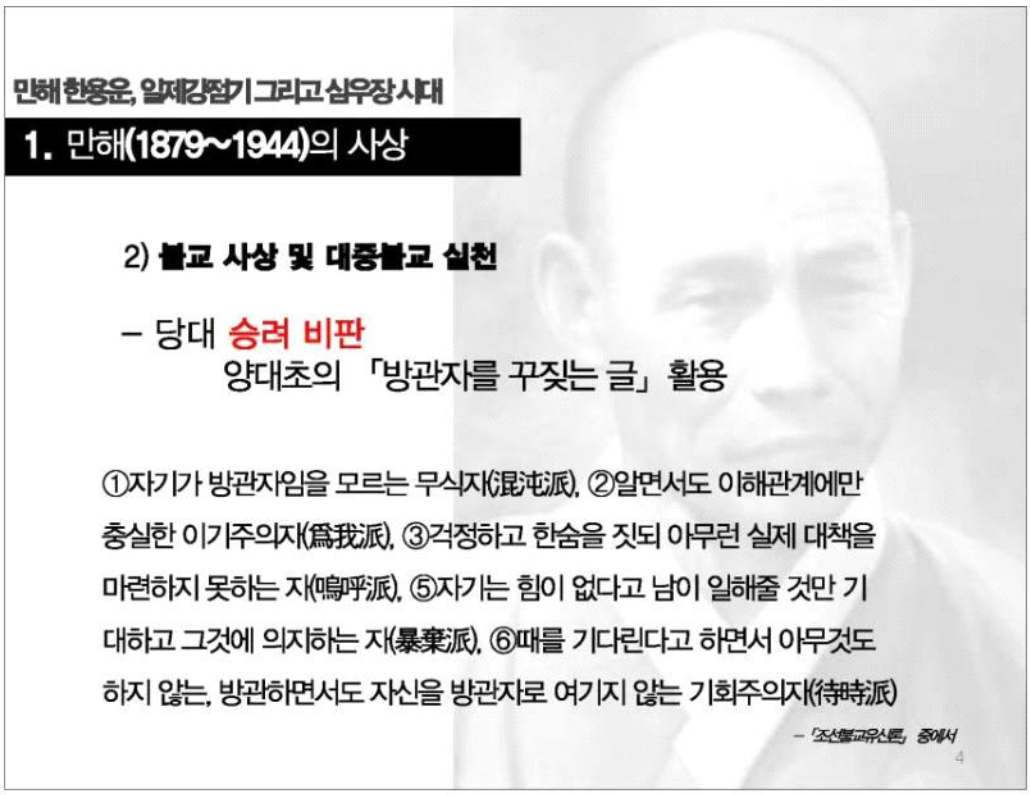
이렇듯이 이 시기 친일협력 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 당시 반제국주의의 급진적 사회주의 문학 이념을 갖고 있던 김용제가 1943년 조선총독부가 국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총독문학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볼 때 친일협력 문학의 영향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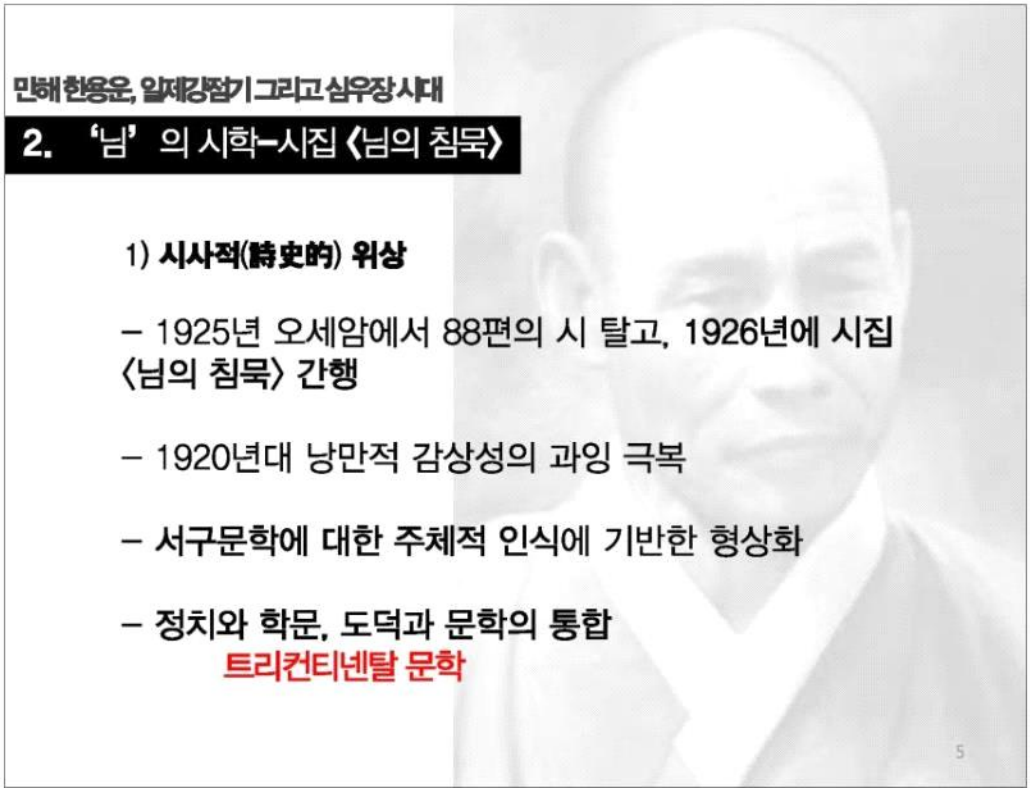
'길 위의 인문학' 특강
만해 한용운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고 명 철
문학평론가, 광운대 국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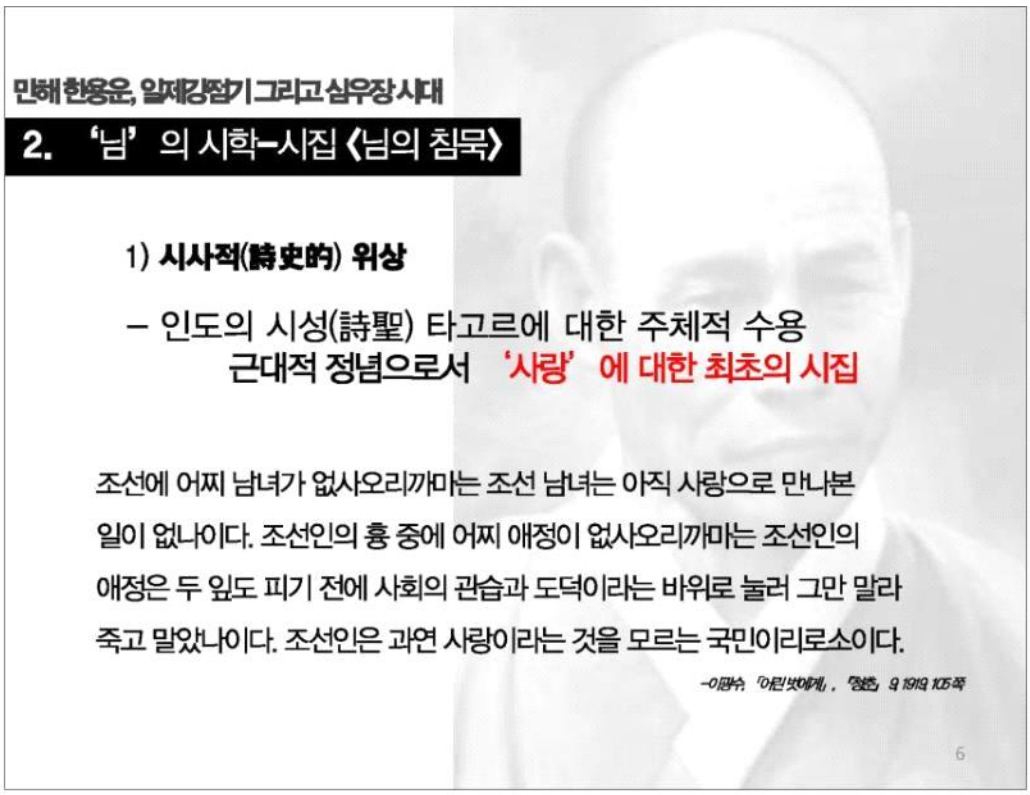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1. 만해(1879~1944)의 사상
1) 민족 독립 사상:
반(反)제국주의, 반(反)국주의, 반(反)식민주의
이른바 강대국, 즉 침략국은 군함과 총포만 많으면 스스로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는 쟁탈을 자행한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세계 또는 어떤 지역의 평화를 위한다거나 쟁탈의 목적물, 즉 침략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다거나 하는 기만적인 헛소리로써 정의의 천사국(天使國)을 자처한다. 예를 들면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하고 2천만 민중을 노예로 취급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선을 병합함이 동양평화를 위함이요, 조선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 「조선독립의 書」 중에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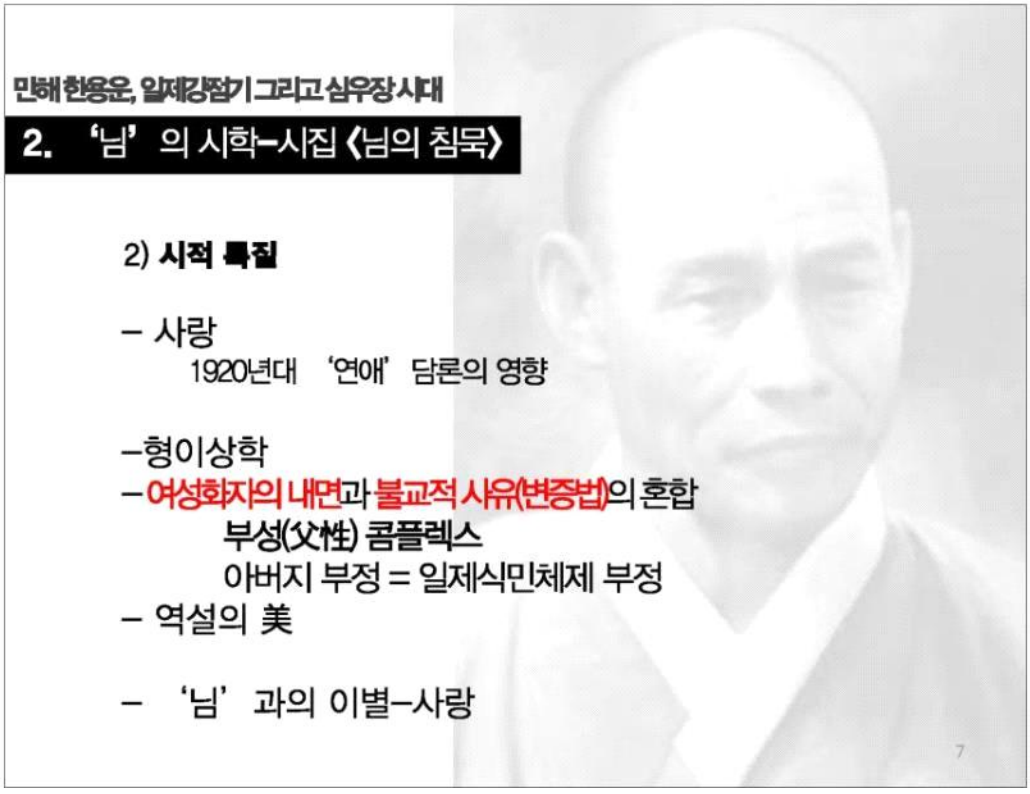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1. 만해(1879~1944)의 사상
1) 민족 독립 사상:
반(反)제국주의, 반(反)국주의, 반(反)식민주의
– 준비론의 허구성 및 외교론의 기만성을 통렬히 비판
일체의 일제와의 타협주의 배격
– 조선독립에 대한 확고한 낙관론 견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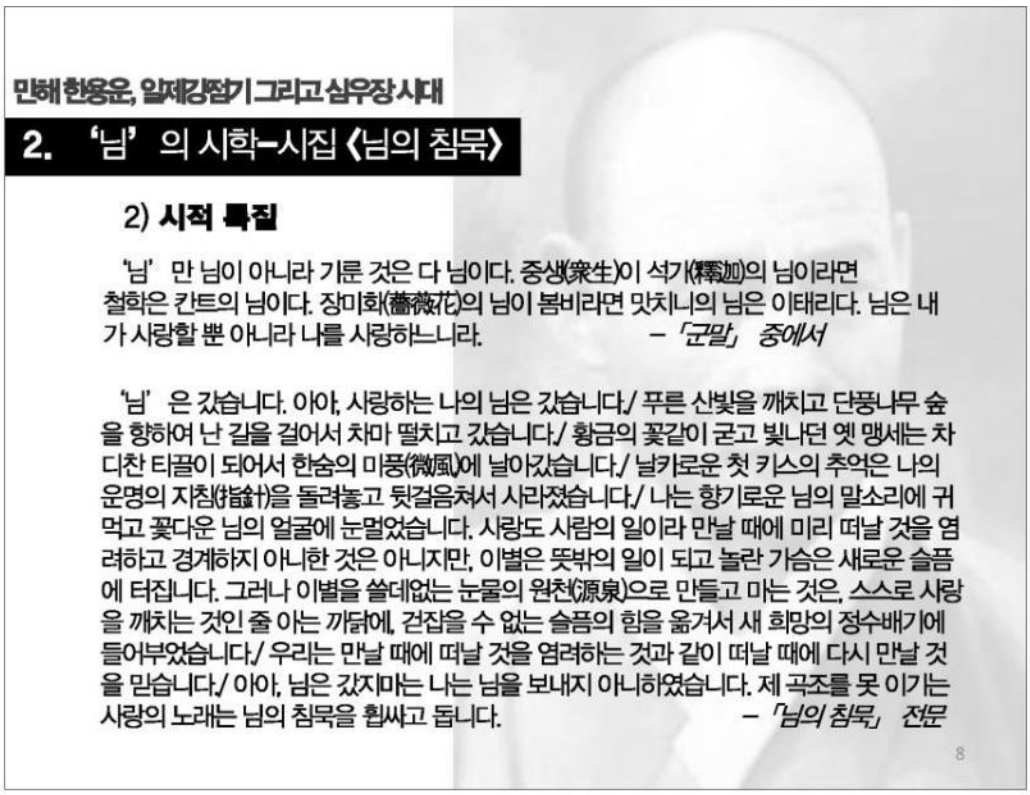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1. 만해(1879~1944)의 사상
2) 불교 사상 및 대중불교 실천
– 근대사상으로서의 불교
1908년의 일본 경험
– 〈조선불교유신론〉
만해사상의 집대성적 성격
'불교사회주의' 로서 불교: 무소유와 경제적 평등
문: 석가의 경제사상을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답:불교사회주의라 하겠지요.
문: 불교의 성지인 인도에도 불교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사회주의가 학설로서 사상적 체계를 이루고 있듯이
불교사회주의가 있어야 옳을 줄 압니다. – 「대담」, 중에서(삼천리) 1931년 11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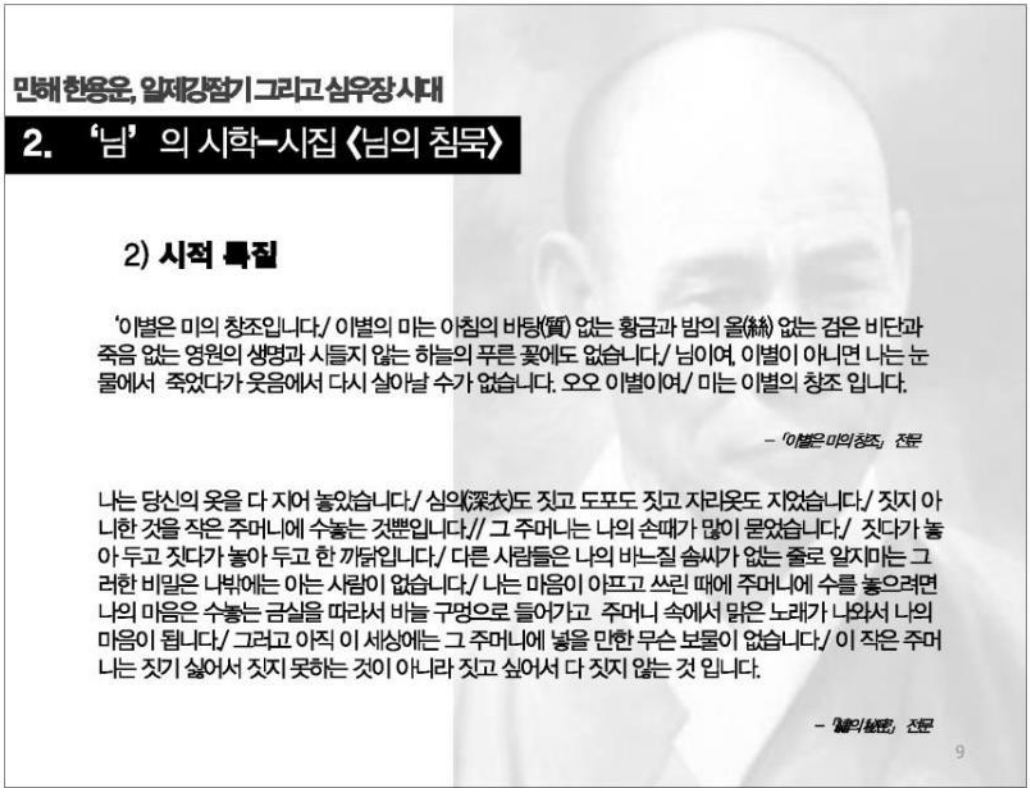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1. 만해(1879~1944)의 사상
2) 불교 사상 및 대중불교 실천
– 당대 승려 비판
양대초의 「방관자를 꾸짖는 글」 활용
①자기가 방관자임을 모르는 무식자(混沌派), ②알면서도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이기주의자(爲我派), ③걱정하고 한숨을 짓되 아무런 실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嗚呼派), ⑤자기는 힘이 없다고 남이 일해줄 것만 기대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자(暴棄派), ⑥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하면서도 자신을 방관자로 여기지 않는 기회주의자(待時派)
– 「조선불교유신론」 중에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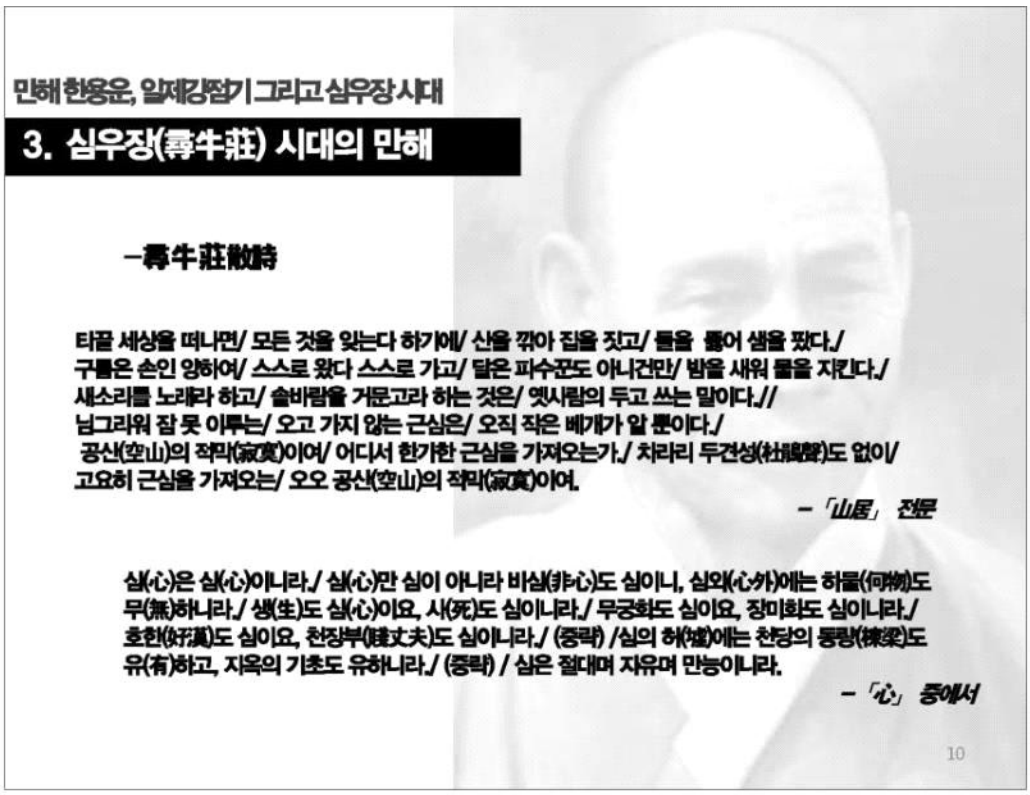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2. '님' 의 시학–시집 《님의 침묵》
1) 시사적(詩史的) 위상
– 1925년 오세암에서 88편의 시 탈고, 1926년에 시집 〈님의 침묵〉 간행
– 1920년대 낭만적 감상성의 과잉 극복
– 서구문학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 기반한 형상화
– 정치와 학문, 도덕과 문학의 통합
트리컨티넨탈 문학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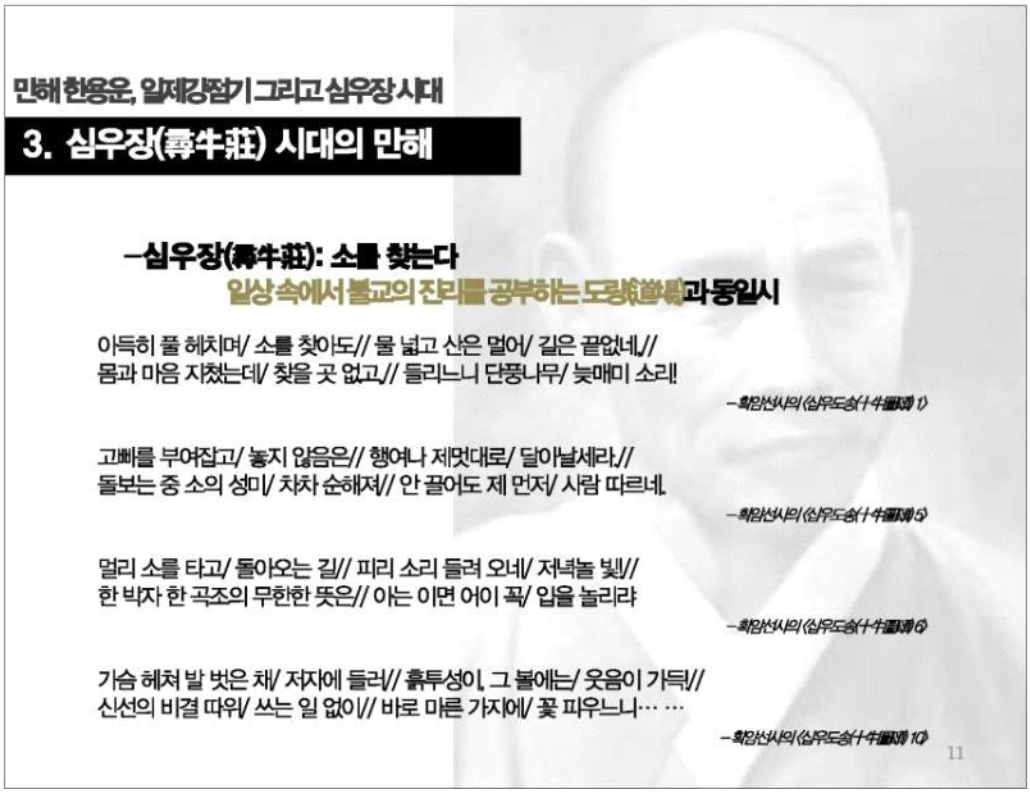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2. '님' 의 시학–시집 《님의 침묵》
1) 시사적(詩史的) 위상
–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에 대한 주체적 수용
근대적 정념으로서 '사랑' 에 대한 최초의 시집
조선에 어찌 남녀가 없사오리까마는 조선 남녀는 아직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조선인의 흉 중에 어찌 애정이 없사오리까마는 조선인의
애정은 두 잎도 피기 전에 사회의 관습과 도덕이라는 바위로 눌러 그만 말라
죽고 말았나이다. 조선인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리로소이다.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9, 1918, 105쪽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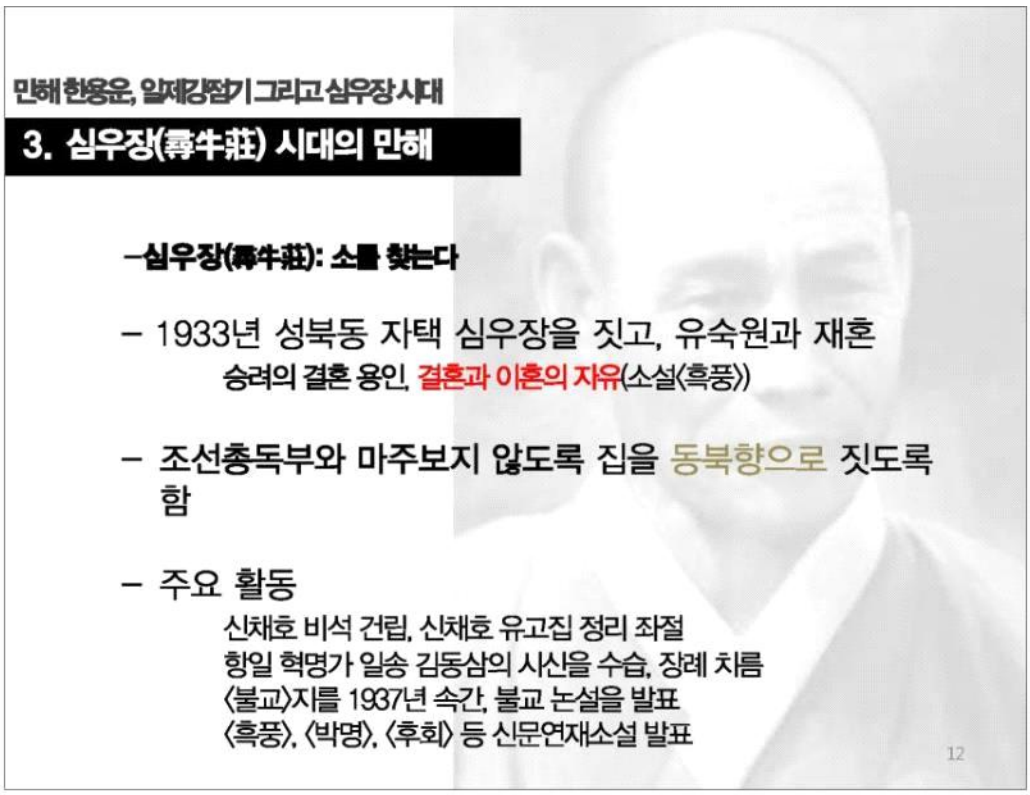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2. '님' 의 시학–시집 《님의 침묵》
2) 시적 특질
– 사랑
1920년대 '연애' 담론의 영향
–형이상학
–여성화자의 내면과 불교적 사유(변증법)의 혼합
부성(父性) 콤플렉스
아버지 부정 = 일제식민체제 부정
– 역설의 美
– '님' 과의 이별–사랑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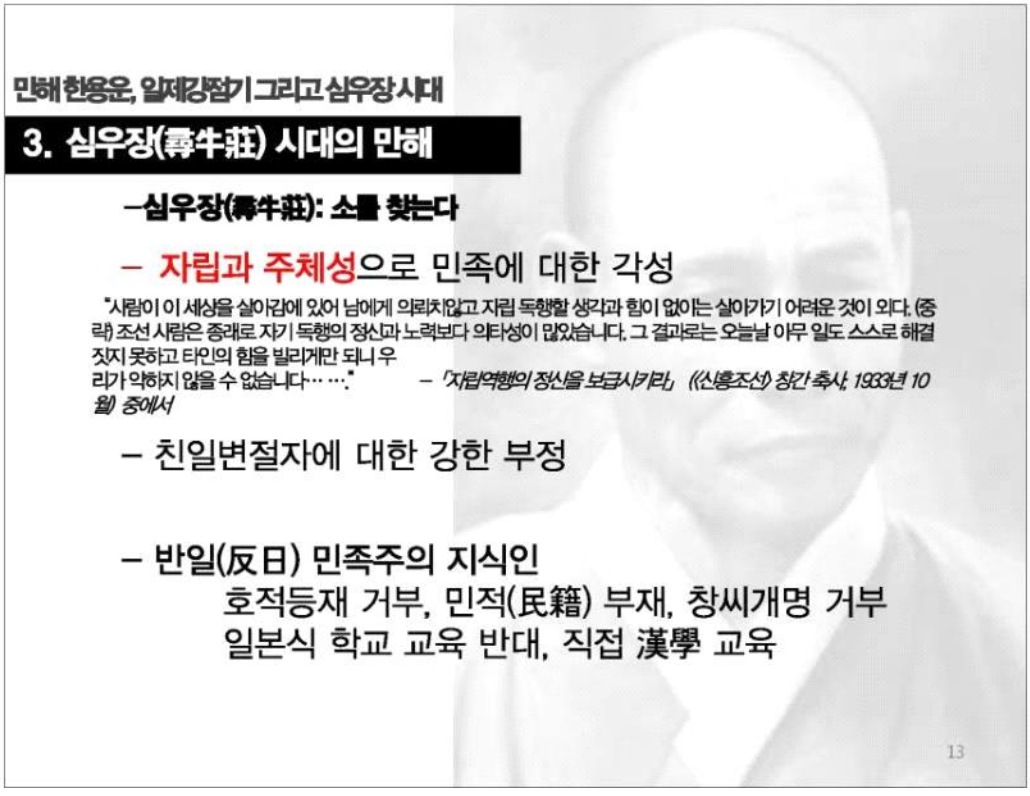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2. '님'의 시학-시집 《님의 침묵》
2) 시적 특질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衆生)이 석가(釋迦)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薔薇花)의 님이 봄비라면 맛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군말」 중에서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전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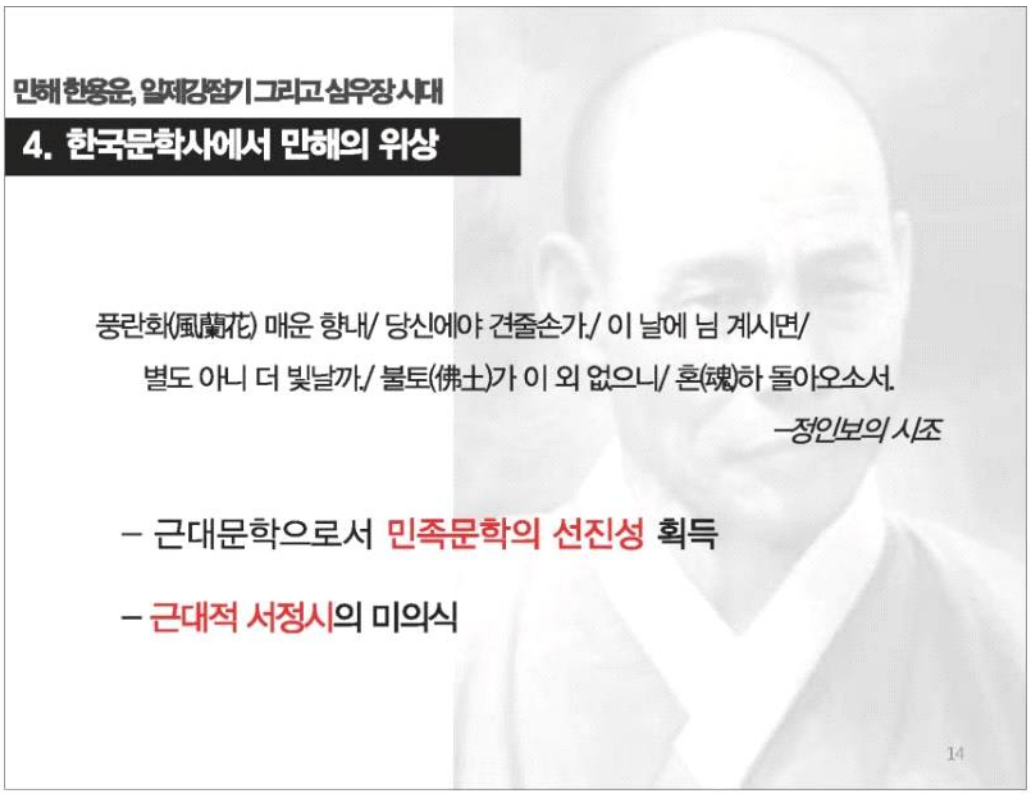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2. '님'의 시학-시집 《님의 침묵》
2) 시적 특질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황금과 밤의 올(絲)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 입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 전문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深衣)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라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을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 두고 짓다가 놓아 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입니다.
-「[illegible]」 전문
9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3. 심우장(尋牛莊) 시대의 만해
–尋牛莊散詩
타끌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 하기에// 산을 깎아 집을 짓고/ 물을 뚫어 샘을 팠다./
구름은 손인 양하여/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고/ 달은 파수꾼도 아니건만/ 밤을 새워 물을 지킨다./
새소리를 노래라 하고/ 솔바람을 거문고라 하는 것은/ 옛사람의 두고 쓰는 말이다.//
님그리워 잠 못 이루는/ 오고 가지 않는 근심은/ 오직 작은 베개가 알 뿐이다./
공산(空山)의 적막(寂寞)이여/ 어디서 한가한 근심을 가져오는가./ 차라리 두견성(杜鵑聲)도 없이/
고요히 근심을 가져오는/ 오오 공산(空山)의 적막(寂寞)이여.
–「山居」 전문
심(心)은 심(心)이니라./ 심(心)만 심이 아니라 비심(非心)도 심이니, 심외(心外)에는 하물(何物)도
무(無)하니라./ 생(生)도 심(心)이요, 사(死)도 심이니라./ 무궁화도 심이요, 장미화도 심이니라./
호한(好漢)도 심이요, 천장부(賤丈夫)도 심이니라./ (중략) /심의 허(墟)에는 천당의 동량(棟梁)도
유(有)하고, 지옥의 기초도 유하니라./ (중략) / 심은 절대며 자유며 만능이니라.
–「心」 중에서
10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3. 심우장(尋牛莊) 시대의 만해
–심우장(尋牛莊): 소를 찾는다
일상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공부하는 도량(道場)과 동일시
아득히 풀 헤치며/ 소를 찾아도// 물 넓고 산은 멀어/ 길은 끝없네//
몸과 마음 지쳤는데/ 찾을 곳 없고// 들리느니 단풍나무/ 늦매미 소리!
–확암선사의 〈심우도송(十牛圖頌) 1〉
고삐를 부여잡고/ 놓지 않음은// 행여나 제멋대로/ 달아날세라.//
돌보는 중 소의 성미/ 차차 순해져// 안 끌어도 제 먼저/ 사람 따르네.
–확암선사의 〈심우도송(十牛圖頌) 5〉
멀리 소를 타고/ 돌아오는 길// 피리 소리 들려 오네/ 저녁놀 빛//
한 박자 한 곡조의 무한한 뜻은// 아는 이면 어이 곡/ 입을 놀리랴
–확암선사의 〈심우도송(十牛圖頌) 6〉
가슴 헤쳐 발 벗은 채/ 저자에 들러// 흙투성이, 그 볼에는/ 웃음이 가득//
신선의 비결 따위/ 쓰는 일 없이// 바로 마른 가지에/ 꽃 피우느니… …
–확암선사의 〈심우도송(十牛圖頌) 10〉
11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3. 심우장(尋牛莊) 시대의 만해
–심우장(尋牛莊): 소를 찾는다
– 1933년 성북동 자택 심우장을 짓고, 유숙원과 재혼
승려의 결혼 용인, 결혼과 이혼의 자유(소설〈흑풍〉)
– 조선총독부와 마주보지 않도록 집을 동북향으로 짓도록 함
– 주요 활동
신채호 비석 건립, 신채호 유고집 정리 좌절
항일 혁명가 일송 김동삼의 사산을 수습, 장례 치름
〈불교〉지를 1937년 속간, 불교 논설을 발표
〈흑풍〉, 〈박명〉, 〈후회〉 등 신문연재소설 발표
12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3. 심우장(尋牛莊) 시대의 만해
–심우장(尋牛莊): 소를 찾는다
– 자립과 주체성으로 민족에 대한 각성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남에게 의뢰치 않고 자립 독행할 생각과 힘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외다. (중략) 조선 사람은 종래로 자기 독행의 정신과 노력보다 의타성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는 오늘날 아무 일도 스스로 해결 짓지 못하고 타인의 힘을 빌리게만 되니 우리가 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립적 행의 정신을 보급시키라」, (《신흥조선》 창간 축사, 1933년 10월) 중에서
– 친일변절자에 대한 강한 부정
– 반일(反日) 민족주의 지식인
호적등재 거부, 민적(民籍) 부재, 창씨개명 거부
일본식 학교 교육 반대, 직접 漢學 교육
13


만해 한용운, 일제강점기 그리고 심우장 시대
4. 한국문학사에서 만해의 위상
풍란화(風蘭花) 매운 향내/ 당신에야 견줄손가./ 이 날에 님 계시면/
별도 아니 더 빛날까./ 불토(佛土)가 이 외 없으니/ 혼(魂)하 돌아오소서.
–정인보의 시조
– 근대문학으로서 민족문학의 선진성 획득
– 근대적 서정시의 미의식
14

감사합니다
Q&A

2차 – 현대문학 속 성북을 만나다.

권 혁 웅
(시인,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마징가 계보학』,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

지도 설명

1. 삼선교회 2. 넓은 마당 3. 우리 집 4. 정복이네 5. 한성여고 6. 보문사 7. 인자네 8. 이모네 국수집, 용구네 솜틀집(넓은 마당2) 9. 관집 10. 이발소	11. 뒷산 12. 나폴레옹제과 13. 동도극장 14. 신의주찹쌀순대 15. 천변 16. 금영노래방 17. 산낙지 18. 춘천닭갈비 19. 회생한의원 20. 정원기사식당	21. 금수장 모텔 22. 조마루감자탕 23. 오징어바다 24. 양평해장국 25. 포장마차 26. 중국집 밀집 지역 27. 애모 28. 도봉근린공원

마징가 계보학

1. 마징가 Z

기운 센 천하장사가 우리 옆집에 살았다 밤만 되면 갈지자로 걸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지만 고철보다는 진로를 더 많이 모았다 아내가 밤마다 우리 집에 도망을 왔는데, 새벽이 되면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돌아가곤 했다 그는 무쇠로 만든 사람, 지칠 줄 모르고 그릇과 프라이팬과 화장품을 창문으로 던졌다 계란 한 판이 금세 없어졌다

2. 그레이트 마징가

어느 날 천하장사가 흠씬 얻어맞았다 아내와 가재를 번갈아 두들겨 패는 소란을 참다 못해 옆집 남자가 나섰던 것이다 오방떡을 만들어 파는 사내였는데, 오방떡 만드는 무쇠 틀로 천하장사의 얼굴에 타원형 무늬를 여럿 새겨 넣었다고 한다 오방떡 기계로 계란빵도 만든다 그가 옆집의 계란 사용법을 유감스러워 했음에 틀림이 없다

3. 짱가

위대한 그 이름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가 오후에 나가서 한밤에 돌아오는 동안, 그의 아내는 한밤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더니 마침내 집을 나와 먼 산을 넘어 날아갔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 일이 사내의 집에서가 아니라 먼 산 너머에서

생겼다는 게 문제였다 사내는 오방떡 장사를 때려치우고, 엄청난 기운으로, 여자를 찾아 다녔다 계란으로 먼 산 치기였다

4. 그랜다이저

여자는 날아서 어디로 갔을까? 내가 아는 4대 명산은 낙산, 성북산, 개운산 그리고 미아리 고개, 그 너머가 외계였다 수많은 버스가 UFO 군단처럼 고개를 넘어왔다가 고개를 넘어갔다 사내에게 역마(驛馬)가 있었다면 여자에게는 도화(桃花)가 있었다 말 타고 찾아간 계곡, 복숭아꽃 시냇물에 떠내려 오니… 그들이 거기서 세월과 계란을 잊은 채… 초록빛 자연과 푸른 하늘과… 내내 행복하기를 바란다

국수

넓은 마당 옆에 국수집이 있다고 내가 말했던가 우리 이모네 집이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나를 그리로 마실 보내곤 했다

우리는 국수보다 삼양라면이 좋았는데 이를테면 꼬불꼬불한 면발을 다 먹고 나서야 아버지는 상을 엎었던 것인데

국수 뽑는 기계는 쉴 새 없이 국수를 뽑았다 동어반복을 거기서 배웠다 목포는 항구고 흥남은 부두지만

국수는 국수다 국물을 우려내는 멸치처럼 나는 작았고 말랐고 부어 있었다 나는 저녁마다 국물 속을 헤엄쳐 다녔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춧가루를 뿌렸다 좋아요 형님, 다신 안 와요 보증을 잘못 섰다고 한다 거길 떠난 후에

내가 먹은 국수는 어머니가 반죽해서 식칼로 썰어낸 손칼국수다 면발이 삐뚤빼뚤해서 이모네 국수처럼 가지런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좋아한 건 이틀에 한 번씩 오는 번데기 리어카와 솜틀집 문에 치어죽은 병아리 그리고 전도관의 풍금 소리,

결단코 국수는 아니었는데

그 후로도 눈이 내렸다 밀린 연탄재를 한길에 내다버릴 수 있다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눈, 국수가 나올 때

그 위에 뿌리는 밀가루처럼 하얗고 퍽퍽하던 그 눈, 우리는 면발처럼 줄줄이 넓은 마당에 나오곤 했던 것인데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진하게 우려낸 하늘은 무엇인가 번데기처럼 구수하고 병아리처럼 노랗고 풍금의 건반처럼 가지런한

이것은 무엇인가

*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백석의 「국수」에서.

미키마우스와 함께

미키, 밤마다 머리 위에서 머리 속에서 놀던
미키, 내 대신 천장에 오줌을 지렸던
그러던 어느 날, 장롱을 넣기 위해 천장을 뜯었더니
중원(中原)에 진출한
미키,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시집을 읽던
미키, 옷장을 열면 조그맣고 말갛고 분홍빛을 띤
바글바글한 새끼들
미키, 쥐약을 놓았더니 옛다, 너 먹어라
삼 개월 된 강아지의 사지를 쫙 펴주었던
미키, 어느 날 화단 뒤에 숨어 오도 가도 못하고
뜨거운 물을 흠뻑 뒤집어쓴
미키, 마침내 연탄집게를 입에 물고
대롱대롱 딸려 올라온
그래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어디인지
가르쳐준

모순

1

나는 아수라 백작의 팬이었다 고철 덩어리 마징가 Z나 봉두난발의 헬 박사, 제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브로켄 백작 모두 아수라의 매력을 앞설 수는 없었다 아수라는 본래 제석천과 싸운 전투의 신이다 양성구유인 그는 두 명의 성우를 데리고 다녔고 왼쪽에서 등장할 때와 오른쪽에서 등장할 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좌익과 우익을 그에게서 배웠다

2

그 다음엔 헐크가 있었다 약을 지어먹은 데이빗 배너 박사는, 그 부작용으로, 분노에 몸을 맡기면 헐크로 변했다 늘 웃옷만 찢어발기는 게 신기했다 긴 대사는 전부 데이빗이 맡았고 헐크는 이두박근을 씰룩이며 그저 으르렁거렸을 뿐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나올 때마다 열광했다 안팎의 경계가 거기에 있었다 정장바지가 쫄바지로 변하곤 했다

3

육백만 불의 사나이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다 스티브 오스틴 대령은 사고로 한쪽 눈과 팔, 두 다리를 잃었다 거액을 들여 망가진 몸을 복구한 후에, 그는 자주 왼쪽 눈썹을 들어올리거나 슬로 모션으로 달리곤 했다 제 안에 제 것 아닌 걸 데리고 사는 사람, 그를 흉내 내느라 초당 9.8미터를 더한 속도로 옥상에서 뛰어내린 아이들이 여럿이다

4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노래했던 시인과 촌장은 한 사람이다 나도 그랬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동네방네 내 이름을 부르며 귀가할 때마다 나는 출가한 붓다였고, 샴쌍둥이처럼 그녀의 몸에 세 들어 살고 싶을 때마다 나는 늑대인간이었으며, 출근하기 싫어 장판에 들러붙을 때마다 나는 그레고르 잠자였다 지금도 이 글을 쓰는 나는… 이라고 쓰는 나는…

수면

작은 돌 하나로 잠든 그의 수심을 짐작해보려 한 적이 있다 그는 주름치마처럼 구겨졌으나 금세 제 표정을 다림질했다 팔매질 한 번에 수십 번 나이테가 그려졌으니 그에게도 여러 세상이 지나갔던 거다

스파이더맨

1
거미인간에 관해 말하자 넓은 마당의 위아래, 전후좌우, 동서남북을 샅샅이 훑던 그의 거미손에는 걸리지 않는 게 없었다 그가 손바닥을 펴면 문짝, 신문지, 고장 난 석유난로, 콜라병 같은 게 손에 와서 척척 붙었다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리어카를 끌고 그는 수도 없이 골목을 오르내렸다

2
넓은 마당은 방사형으로 가지를 친 수많은 길과 골목의 중심이다 거기서 동쪽 능선을 넘어가면 보문사가, 남쪽 고갯마루를 타넘으면 배성여상이, 서쪽 산정에 오르면 낙산 아파트가 나온다 북쪽 길로 내려가면 삼선 초등학교다 거기에 수많은 골목과 골목이 들러붙어 새끼를 쳤다

3
사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이는 인자(仁子)다 건너편 등성이에 사는 성신여중 학생이다 좁다란 시멘트 길을 걸어 올라가던 그 아이의 실루엣을 이쪽 건너편에서 볼 때마다, 나는 거미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를 따라 리어카를 따라 소녀의 집까지 가보고 싶었다 다족류(多足類)의 발 하나를 거기 걸쳐두고 싶었다

4
거미 인간은 넓은 마당 한구석에 모아온 것들을 쌓아두었다 그 아이를 고치처럼 둘둘 말아 종이뭉치와 고철 더미와 나무토막 옆에 두었다 이십 년 동안 모아 두었다 이십 년 동안 소녀는 나처럼 낡아갔을까 거기서 방문을 드나들고 폐지를 학교에 내고 난로를 쬐고 콜라를 마셨을까

5

모든 길은 넓은 마당으로 모이고 넓은 마당에서 갈라졌다 우리는 골목에서 태어나 넓은 마당으로 갔다 우리는 거기서 걸렸다 거미 인간만이 보문사와 낙산을, 배성여상과 삼선초등학교를, 나와 인자 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는 자유인이었고 독재자였다 그의 많은 재산 가운데 약간을 대출 받아 이렇게 쓴다

*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최백호의 노래

드래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산 186번지 넓은 마당 솜틀집에는 용구 엄마, 용구 아빠와 용구, 용철이와 용숙이가 살았다 장남 용철(龍哲)이는 현명하고 차녀 용숙(龍淑)이는 현숙했는데 막내 용구(龍九)는 바보였다 이름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그 집 앞에서 자주 영구야 놀자, 노래를 불렀다 용구 엄마가 솜 막대를 들고 뛰어나오곤 했다

용구 아빠는 술을 먹으면 솜 트는 기계가 솜을 부리듯 아이들을 편편해질 때까지 두들겼다 세 아이가 이불처럼 넓은 마당에 널리곤 했다 솜틀집에는 먼지가 많았고 솜 트는 기계는 쉬지 않고 이불솜을 지어냈고 이불솜은 구름처럼 푹신했다 용구네 아이들은 똘똘해서 모두들 그걸 타고 승천할 거라고 했는데,

먼저 승천한 사람은 용구 아빠였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온 날, 용구 아빠는 얼어붙은 몸을 소주병 곁에 두고 사라졌다 그가 누워 있던 눈밭도 구름처럼 자욱했다고 해야 할까 세 갈래 길이 모이는 넓은 마당, 한 길은 산정으로 한 길은 개천으로 한 길은 대처로 이어졌다 용구 아빠가 산정으로 난 길을 떠메고 갔다

개천으로 난 물길을 타고 간 사람이 용숙이었다 바다로 난 물길을 따라 일본까지 둥둥 떠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물길을 몸으로 받아 퉁퉁 부풀어 올랐다고 한다 매달 십오만 원이나 부친다고 용구 엄마가 자랑할 때, 모두들 여기가 개천이라고 한탄들이었다 솜틀집에선 상서로운 먼지가 햇살을 받아 뛰어 놀았고 용숙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돈으로 당당하게 대처에 나갔던 용철이는 뱀처럼 비실비실 넓은 마당에 돌아왔다 세 번 대학에 떨어지고 군대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후에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안방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가 아무도 못 본 사이에 이불을 타고 날아올랐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솜틀집을 헐어 솜먼지들이 날아오를 때에도 거기 없었다니까 맞는 얘기 같다

이번엔 용구가 대처로 떠났다 솜이불 위에서 놀다가 바늘이 몸에 들어왔다고 한다 넓은 마당에 그때까지 본 차 중에 제일 큰 차가 올라와서 용구를 태워갔다 용구 엄마가 넓은 마당이 떠나가라 울었으나 솜틀집에는 뼛가루 같은 먼지만 날렸을 뿐이다 넓은 마당에서 나간 길이 세 갈래였으므로 용구 엄마는 집을 지켰다

용구 엄마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작아져 갔다 처음엔 이불만 했다가 엉킨 이불솜만 했다가 부풀기 전의 목화솜만 해졌다 너무 작아져 나중엔 솜사탕을 만들어 파는 양철통에 담길 정도라고 했다 사람들은 결국 용구 엄마를 잊었으나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산 186번지 그 집을 여전히 용구네라 불렀다

드라큘라

넓은 마당 한 구석에 관 짜는 집이 있었다 옻칠한 관이 틀니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던 곳, 늘 어두워 지나는 이가 실루엣으로만 보이던 곳, 거기가 적금 붓듯 오래된 과거를 쟁여 넣는 데라는 걸 내가 알았을 턱이 없다

내가 좋아한 것은 대패가 나무 위를 건너가는,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 대패가 엿판을 지나갈 때 얇게 저며져 나오는 엿처럼 달콤하고, 이태리타월이 살결을 지나갈 때 검게 줄 지어 나오는 때처럼 시원한 그 소리

거기가 곗돈 붓듯 오래된 미래를 모아두는 데라는 걸 내가 알았을 턱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좁은 창문을 넘어오던 깡마른 햇살, 햇살을 타고 먼지가 되어 날아오른 할머니, 용구 아빠와 용구

그이들은 그리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 혹시 모른다, 밤이 되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비죽 나온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틀니처럼 반짝이는 웃음을 웃지 않았을까 대패 지나는 소리로 서걱서걱,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그곳을 떠난 후에 관 짜는 집도 사라졌다 할머니도 선산으로 떠나시고 용구도 제 아빠를 무동 타고 어딘가로 이사 갔다 지금 서울엔 마늘 시세가 똥값이다 십자가는 동네마다 있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에 산다

그분들처럼 이 동네 사람들도 밤이 되면 층층이, 나란히, 눕는다

쑥대머리

제가 다니던 삼선교회엔 유난히 숙이 많았죠
은숙(恩淑)이, 애숙(愛淑)이, 양숙(良淑)이, 현숙(賢淑)이, 경숙(京淑)이, 남숙(南淑)이, 난숙(蘭淑)이, 미숙(美淑)이, 정숙(貞淑)이…
그야말로 쑥밭이었죠 제일 믿음이 좋았던 애는 은숙이,
애숙이는 잠시 나를 사랑했고
양숙이와 현숙이는 정말로 현모양처가 되었죠
경숙이는 지금도 서울에 살지만, 남숙이는
먼 데로 이사갔답니다
난숙이는 청초했고 미숙이는 예뻤는데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애는 정숙이에요
어렸을 때 귤껍질 넣은
뜨거운 주전자 물을 뒤집어썼지만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던 아이,
그러던 어느 성탄절에 성극을 하다가
두건과 함께 가발이 홀랑 벗겨진,
울지도 않고 끝까지 마리아 역할을 하고는
그 길로 교회를 떠난 아이, 지금도 어디선가
단정한 자세로 앉아
거지꼴을 한 동방박사들을 기다리는 거나 아닌지요

독수리 오형제

0. 기지(基地)

정복이네는 우리 집보다 해발 30미터가 더 높은 곳에 살았다 조그만 둥지에서 4남 1녀가 엄마와 눈 없는 곰들과 살았다 곰들에게 눈알을 붙여주면서 바글바글 살았다 가끔 수금하러 아버지가 다녀갔다

1. 독수리

큰형이 눈뜬 곰들을 다 잡아먹었다 혼자 대학을 나온 형은 졸업하자마자 둥지를 떠났다 정복이 말에 의하면, 큰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벗어지고 아버지를 닮아서 집을 싫어했다

2. 콘돌

둘째 형은 이름난 싸움꾼이었다 십대일로 싸워 이겼다는 무용담이 어깨 위에서 별처럼 반짝이곤 했다 형은 곰들이 눈을 뜨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다 둘째형이 큰집에 살러가느라 집을 비우면 작은집에서 살던 아버지가 찾아왔다

3. 백조

누나는 자주 엄마에게 대들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곰 같이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눈알을 박아 넣는 엄마 손이 가늘게 떨렸다 누나 손은 미싱을 돌리기에는 너무 우아했다 누나는 술잔을 집었다

4. 제비

정복이는 꼬마 웨이터였다 누나와 이름 모르는 아저씨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소식을 주워 날랐다 봄날은 오지 않고 박꽃도 피지 않았으며 곰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다 그냥, 정복이만 바빴다

5. 올빼미

하루는 아버지가 작은집에서 뚱뚱한 아이를 데려왔다 인사해라, 네 셋째 형이다 새로 생긴 형은 말도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지도 않았다 그저 밤중에 앉아서 눈뜬 곰들과 노는 게 전부였다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했다

6. 불새

우리는 정복이네보다 해발 30미터가 낮은 곳에 살았다 길이 점점 좁아졌으므로 그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우리 집 앞에서 멈추었다 그들은 불타는 곰발바닥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 사실 독수리 오형제는 독수리들도 아니고, 오형제도 아니다. 다섯 조류가 모인 의남매다. 다섯이 모이면 불새로 변해서 싸운다.

나폴레옹 이야기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을 1982년, 동아 완전정복에서 만났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그는 외쳤으나 연합군 가운데는 산을 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연합고사를 목전에 두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친구 여섯이 낙오했다

이듬해 만난 나폴레옹은 빵장수였다 삼선교에 자리한 나폴레옹 제과점, 회색 교복 바지를 줄여 입는 남자애들과 검은색 교복 치마를 올려 입는 여자애들이 그의 베이커리에 가득했다 조끼 안주머니에 한 손을 넣어 슬슬 쓰다듬던 남자, 배부른 남자였다

대학 때 만난 나폴레옹은 섹시했다 반쯤 벌린/다문 입과 반쯤 감은/뜬 눈(사선은 루즈와 아이섀도의 경계를 말한다), 착 달라붙은 옷…(말줄임표는 필설로는 도저히… 란 뜻이다) 김완선으로 분한 그는 식이 섬유 음료를 팔고 있었다

그 후로는 술통 속에서 그를 꺼내주곤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작은 거인이었다 그는 인기가 좋았다 나는 그 비결이 궁금했지만, 그와 나의 공통점은 “작은”이었지 “거인”이 아니었다 겔포스 전속모델로 딱 좋았을, 힘 좋고 오래가는, 그리고 지금도 자그마한

슈퍼맨

1

넓은 마당에 버드나무슈퍼가 있었다 주인은 대단한 사내였다 낮에는 백발에 기역자로 굽은 허리를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새까만 머리에 꼿꼿한 허리로 일어섰다 주인이 둘이고, 둘이 부자(父子)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버드나무슈퍼에서는 밤낮이 바뀌었을 뿐인데 25년이 흘렀다

2

봄이면 젊은 주인이 나무를 탔다 간판을 가린다며 짧고 굵은 가지를 가리지 않고 잘라냈다 몸통만 있는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로 마당을 비질하지 못하는 버드나무, 평상에 그늘을 드리우지 못하는 버드나무, 슈퍼란 이름에 세 들어 사는 버드나무가 거기에 있었다

3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있었다 낮에는 며느리, 밤에는 아내가 되었던 여자, 버드나무 늘어진 가지를 치렁치렁 머리에 붙인 여자였다 그러던 그녀가 미련 없이 출가했다 단골손님들이 여자만 찾은 게 문제였다 주인은 역시 대단한 사내였다 여자 위에 올라타서는, 긴 생머리를 싹둑싹둑 잘라버렸다

4

그건 여자의 두 번째 출가였다 상한 우유를 먹고(그 많던 우유 가운데 어떻게 상한 우유를 골라냈을까?), 몇 주 동안 설사를 하느라 가게를 비운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늙은 주인이 슈퍼를 떠났다 버드나무 가지에 노란 등이 걸렸다 사내의 성이 김씨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렇게 25년이 흘렀다

5

얼마 전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 슈퍼엔 젊은 주인이 떠나고 늙은 주인이 돌아와 있었다 대단한 사내였다 그 먼 곳에서 25년을 건너 어떻게 돌아왔을까? 어쩌면 여자도 환속했을지 모른다, 다시 가지를 낸 저 버드나무처럼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앉아서 상한 우유를 골라먹고 있을지 모른다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배트맨

그는 어둠의 지배자였다 동굴처럼 패어나간 골목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점프컷으로 날아오던 남자가 있었다 한성여고 뒤편은 달의 뒷면과 같아서 꼬불꼬불한 내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달빛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골목 저쪽에서 전전반측, 그가 날아왔다 불운(不運)한 이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그는 검은 날개를 펼쳐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곤 했다 불우(不遇)한 이들이 비명을 듣고 뛰쳐나와도 한 번도 그를 본 적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어둠의 지배자였다 여자들이 가슴에 품은 두 개의 달, 그 빛 아래서만 그는 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불한당들의 세계사

1. 여해적(女海賊)

면도칼을 씹어대던 주인집 작은 누나는 삼선교 칠공주 가운데 넷째였다 첫째와 셋째는 미아리 파와 영역 싸움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갔고 둘째는 같은 날 도망쳤다가 제명되었으며 다섯째는 덜컥 임신했고 여섯째는 가출해서 연락두절이었으며 일곱째는 개과천선했다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누나의 입안뿐이었다

2. 장밋빛 모퉁이의 남자

이상필은 삼선문방구집 둘째 아들이다 늘 총천연색 크레파스를 갖고 다녔던 우리 반 친구다 그 친구 삶도 무지개빛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반장이었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삼선극장 뒤편 골목길에서 중학생들의 삥을 뜯고 다녔다 장밋빛으로 시작해서 검은빛으로 완성한 그림이었다

3. 무례한 예절 선생

빽바지를 입고 다니던 사촌형을 마지막으로 만난 곳은 경찰서였다 젊은 녀석이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들을… 순경들이 지나가며 조서를 철한 장부로 머리를 탕탕 내리치고 있었다 형은 고고에서 지루박까지 못 추는 게 없었지만, 순경 앞에서만큼은 맥을 못 추었다

4. 잔혹한 구세주

내가 다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사임했다 안질이 심해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실

은 밤에 찾아온 여집사님을 사택에서 맞아들인 게 문제였다고 한다 밤에도 정장차림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생각한 분이 잠옷 바람으로 나왔으니 여집사님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그분 눈이 어두웠다는 것도 맞기는 맞는 말이다

5. 황당무계한 사기꾼

나주 아줌마가 가출한 것은 내가 고 1때 일이다 외아들이 날마다 돈을 내놓으라고 부수고 때리고 발광을 해댔기 때문이다 나보다 여덟 살이 많았던 형은 내 나이 때부터 포커에 미쳐 밑 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부었다 결국 형은 집문서까지 잡아먹고는 지금껏 을지로에서 서울역으로 풍찬노숙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6. 부정한 상인

어머니는 피 같은 돈 800만원을 떼였다 연희 엄마는 이웃사촌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려 남편 계좌에 넣고는 가뿐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고 재판정에 끌고 갔지만, 눈물 콧물 섞은 아줌마 한탄에 판사도 홀딱 넘어가고 말았다 연희 엄마는 지금도 연희와 아저씨와 잘 산다

*『불한당들의 세계사』: 보르헤스의 소설집. 작은 제목들은 이 책에 실린 소설 제목들이다.

아톰

내 삶은 낙원이발관에서 시작 되었죠 2대 8 가르마가 지나가는 땅딸이 이발사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삐죽 솟은 머리와 2대 8로 나뉜 포마드 냄새가 좋았죠 한겨울 넓은 마당엔 하얀 눈과 하얀 김 오르는 주전자와 하얀 수건과 하얀 가운을 입은 땅딸이 아저씨가 있었죠 의자 팔걸이에 걸쳐둔 판자에 앉아 하얀 보자기를 덮어쓴 채 거울을 보면 유리문 밖에는 뒤바뀐 별유천지(別有天地)가 있었습니다 비인간(非人間)인 우주소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저씨는 처음엔 무궁화 빨래비누로, 다음엔 데이트 세숫비누로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언제나 끝이 더 달콤했던 거죠 말쑥해진 머리를 아저씨 가운에 기대면 넓은 마당 한가운데 동그랗게 눈 녹은 자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첫눈

우리 교회 김 집사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왈랑왈랑, 어지러운 방언으로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남편에게 얻어터져도
저 년 보기 싫어 내사 밥도 안 먹을란다,
시어머니 몸 져 누워도
우리 김 집사님, 새벽마다 가출 했습니다

엄마를 반만 닮았어도 첫째, 둘째 딸
대학에 갔을 텐데… 어린 막내딸만
엄마를 닮아 부지런했습니다
마중 나온 막내, 엄마! 하며 뛰어가다가
넓은 마당에서 회차 하는 마을버스,
뒷바퀴 밑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첫눈이 왈랑왈랑,
어지럽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퀴 밑에서 떨리는 어린 딸, 눈처럼 고왔습니다
어린 막내딸, 김 집사님보다도 먼저
하나님 만나러 첫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조용필의 노래

내 사랑 유자 씨

저기 머리통 하나 굴러간다
노랗게 질려서, 내 사랑 유자 씨 굴러간다
진초록 잎을 매단 치마솔기 말아 쥐고
재게 발을 놀리며, 덩굴째 굴러간다
연탄집게를 손에 들고 유자 씨 아버지 쫓아간다
이년아, 누가, 너더러… 술 먹고,
돈 벌어, 오라고… 아버지 뒷말은
급한 숨이 잘라먹고
아이고, 여보, 밥이나 들고… 어머니 뒷말은
고갯마루가 잘라먹고
유자 씨 뒤도 안 돌아보고 굴러간다
유자 씨 동생은 대학생,
외출 때마다 동생 대신 들고 다니던
통계학개론 책도 버려두고
내 사랑 유자 씨 굴러간다
난닝구 차림의 아버지, 밥주걱을 든 어머니,
그 뒤에 울고불고 떠드는 동생 셋을 줄줄이 매단
넌출을 끌고
저기 대학생 유진 씨 굴러간다

* “내 사랑 유자C”: 웅진식품의 음료수 이름

떨어져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날 저문 낙산(落山)에서 내려다보면
종로는 노란 밥알, 둥둥 떠다니는
빛의 바다였네
그 바다에서 밥물 끓어 넘쳐 저 아래까지 거품이 밀려 왔네
여자 하나,
짠물에 밥 말아먹고 서둘러 이리로 오네
붉은 저녁이 천천히 사라지고 물고기자리 떠오르고
감은 눈 속에선 적군파(赤軍派)라도 쏟아진 것인지
밥물 끓는 냄새로 빈혈의 하루가 저무는데
그녀의 이름은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동소문동에서 창신동까지
30 킬로그램 화장품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 여자, 씩씩하게 걸어서 오네
장땡이라도 꽃밭에 뜬 보름달 앞에선 무용지물,
사슴의 무리는 지아비의 손아귀에서 울고
전세 보증금은 삼팔광땡 앞에서 울어
사면이 도무지 초가였어도
그 여자, 쉬지도 않고 걸어서 오네
양손에 쌀 백 근을 나누어 들고
내 깔깔한 혓바닥에 벼 이삭 심으러 오네

* “떨어져나가 앉은 산 위에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소월의 시 「초혼」에서

고스톱에 관한 보고서

아버지는 오후가 되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외근을 나오곤 했다
초여름 녹음이 당구장에서 얻어온 푸른 융처럼
부드럽고 아늑한 거기서
아버지와 직원들은 진지하게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지닌 카탈로그는
아동문학전집, 건강 자석요, 장식용 청자, 알로에
개인용 휴대 헤어컬 등 다양했으나
아버지의 영업방식은 한결 같았다
오늘의 운세를 타고난 사람에게
차비와 식비를 몰아주는 것,
늘 담배를 입에 물고 패를 뒤집느라
새우 눈을 한 직원, 오른손 검지와 엄지가 없어
왼손으로 패를 섞곤 했던 직원,
허리가 아프다며 베개와 이불더미에 기대어
패를 치던 직원 그리고
아버지 가운데 하나가 그날의 일당을 타갔다

청단처럼 푸르른 나날
홍단처럼 발그레한 나날

어느 날, 새우 눈을 가진 직원이 판을 엎었다
손가락 없는 직원의 서툰 손재주가 문제였다
허리 아픈 직원은
다친 허리 때문에 엎드려 있었고
말리던 아버지만 소주병에 맞았다
아버지 혼자 피박과 광박을 다 덮어썼다
병을 깬 직원은 청단처럼 서슬이 파랬고
병에 맞은 아버진 홍단처럼 얼굴이 붉었다
마당의 닭들이 고도리처럼 날아올랐다

청단처럼 푸르른 나날
홍단처럼 발그레한 나날

그 후로 아버진 스쿠알렌만 팔았다
심해 상어의 간에서 만들었다는 신비의 약
상어처럼 늘 움직여야 하는 아버지,
재수가 없던 아버지,
십여 년 후 심해로 잠수해서는
다시는 올라오지 않던
—지금도 재수를 떼는 어머니를 보면
그 시절이 여전하다는 걸
알 것 같다, 이를테면

청단처럼 푸르른 나날
홍단처럼 발그레한 나날

돈 워리 비 해피

1
워리는 덩치가 산만한 황구였죠
우리 집 대문에 줄을 매서 키웠는데
지 꼴을 생각 못하고
아무나 보고 반갑다고 꼬리치며 달려드는 통에
동네 아줌마와 애들, 여럿 넘어 갔습니다
이 피멍 좀 봐, 아까징끼 값 내놔
그래서 나한테도 엄청 맞았지만
우리 워리, 꼬리만 흔들며
그 매,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한번은 장염에 걸려
누렇고 물큰한 똥을 지 몸만큼 쏟아냈지요
아버지는 약값과 고기 값을 한번에 벌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한성여고 수위를 하는 주인집 아저씨,
수육을 산처럼 쌓아놓고 금강야차처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씹을 듯 했습니다

2

누나는 복실이를 해피라고 불렀습니다
해피야, 너는 워리처럼 되지 마
세 달 만에 동생을 쥐약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해피 두 배로 행복해야 옳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아저씨들, 장작 몇 개 집어들고는
해피를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왈왈 짖으며 용감한 우리 해피, 뒷산을 타넘어
내게로 도망 왔지요
찾아온 아저씨들, 나일론 끈을 내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피가 네 말을 잘 들으니
이 끈을 목에 걸어주지 않겠니?
착한 나, 내게 꼬리치는 착한 해피 목에
줄을 걸어 줬지요
지금도 내 손모가지는 팔뚝에 얌전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여덟 살, 해피가 두 살 때 얘기입니다

* Don't Worry, Be Happy: Bobby McFerrin의 노래.

해는 보문사에서 뜨고 한성여고로 진다

넓은 마당의 해는 보문사에서 떠오른다
스님들 머리처럼 반질반질하고
헐벗었다 탁발하러 해는
넓은 마당 위 능선을 부지런히 오르내린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과 속옷 빨래를 얻고
경문 대신 햇빛을 조금씩 나눠준다
안방 구들장 위에 한 뼘,
손녀딸 방에 얹힌 할머니 천식에 두 뼘,
하지만 장롱으로 막아 꾸민
큰아들과 작은아들 방 책상에는
국물도 없다 서유석의 푸른 신호등을 지나
김기덕의 두 시의 테이트를 지나
오미희의 가요 응접실에 이르기까지
해는 먼 길을 가야 한다
가장이 작업복처럼 쭈글쭈글해져서 귀가하기 전에
안주인이 영양크림과 스킨과 로숀을 잔뜩 안고
외판에서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마침내 해는 달아오른 얼굴로
한성여고 품에 안긴다
딸아이들은 저마다 치마 안에 해를 감춰두고
고개를 넘어온다 깔깔거리며
넓은 마당으로 돌아온다 그녀들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들으며
할머니 기침 소리를 들으며
삼십 촉짜리 알을 낳을 것이다

세상의 끝

동도극장을 아십니까?
만약 아신다면 당신은 저 오랜 독재자가 말년을 보낼 즈음에 삼선동과 동소문동 어디쯤에서 살았던 것이 틀림없군요

넓은 마당을 곧장 내려가면 삼선초등학교가 나오고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오른편으로 가면 경동고등학교가, 왼편으로 가면 한성여고가 나옵니다 삼거리는 어디나 연애담을 담고 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이 거기서 만나 동도극장에 가곤 했답니다 학생주임이 몽둥이를 들고 그곳을 급습했지만, 아시다시피 필름은 하루에 다섯 번이나 돌아가고 극장 안은 아주 어둡습니다

내가 동도극장을 처음 본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두 번째 독재자의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사러 새벽길을 가는데, 머리가 떨어져나간 시체가 소복을 입은 채 으스스하게 서 있는 거였습니다 <목 없는 미녀>란 프로였죠 귀신은 우체국 앞까지 좇아왔다가 날이 밝아서야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얼굴이 없었는데 미녀인 건 어떻게 알았으며 소복을 입었는데 몸매는 또 어떻게 보았을까요?

나중에야 그게 세상 끝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운명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슴프레 서 있긴 한데 도무지 얼굴은 보이지 않는 이들 말이죠 동도극장이 꼭 그랬습니다 내가 철이 들 무렵 동도극장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내가 연소자 관람불가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지요 나는 지금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동도극장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세상 끝까지 가보지 못했답니다

방광에 고인 그리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산 302번지
우리 집은 십이지장쯤 되는 곳에 있었지
저녁이면 어머니는 소화되지 않은 채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귀가하곤 했네
당신 몸만 한 화장품 가방을 끌고, 새까맣게 탄 게
쓸개즙을 뒤집어쓴 거 같았네
야채나 생선을 실은 트럭은 창신동을 지나
명신 초등학교 쪽으로만 넘어왔지
식도가 너무 좁고 가팔랐기 때문이네
동네에서 제일 위엄 있고 무서운 집은
관 짜는 집,
시커먼 벽돌 덩어리가 위암 같았네
거기 들어가면 끝장이라네
소장과 대장은 얘기할 수도 없지
딱딱해진 덩어리는 쓰레기차가 치워갔지만
물큰한 것들은 넓은 마당에 흘러들었네
넓은 마당은 방광과 같아서
터질 듯 못 견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짐을 이고지고 한꺼번에 그곳을
떠나곤 했던 것이네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

지금 애인의 울음은 변비 비슷해서 두 시간째
끊겼다 이어졌다 한다
몸 안을 지나는 긴 울음통이 토막 나 있다
신의주찹쌀순대 2층, 순대 국을 앞에 두고
애인의 눈물은 간을 맞추고 있다
그는 눌린 머리 고기처럼 얼굴을 눌러
눈물을 짜낸다
새우젓이 짜부라진 그의 눈을 흉내 낸다
나는 당면처럼 미끄럽게 지나간
시간의 다발을 생각하고
마음이 선지처럼 붉어진다 다 잘게 썰린
옛날 일이다
연애의 길고 구부정한 구절양장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빨래판에 치댄 표정이 되었지
융털 촘촘한 세월이었다고 하기엔
뭔가가 빠져 있다
지금 마늘과 깍두기만 먹고 견딘다 해도
동굴 같은 내장 같은
애인의 목구멍을 다시 채워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버릇처럼 애인의 얼굴을 만지려다 만다
휴지를 든 손이 변비 앞에서 멈칫하고 만다

봄밤

전봇대에 윗옷 걸어두고 발치에 양말 벗어두고
천변 벤치에 누워 코를 고는 취객
현세와 통하는 스위치를 화끈하게 내려버린
저 캄캄함 혹은 편안함
그는 자신을 마셔버린 거다
무슨 맛이었을까?
아니 그는 자신을 저기에 토해놓은 거다
이번엔 무슨 맛이었을까?
먹고 마시고 토하는 동안 그는 그냥 긴 관(管)이다
그가 전 생애를 걸고
이쪽저쪽으로 몰려다니는 동안
침대와 옷걸이를 들고 집이 그를 마중 나왔다
지갑은 누군가 가져간 지 오래,
현세로 돌아갈 패스포트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는 편안한 수평이 되어 있다
다시 직립인간이 되지는 않겠다는 듯이
부장 앞에서 목이 굽은 인간으로
다시 진화하지 않겠다는 듯이
봄밤이 거느린 슬하,
어리둥절한 꽃잎 하나가 그를 덮는다
이불처럼
부의봉투처럼

금영노래방에서 두 시간

너의 박수가 후렴 너머를 향해 있다는 건
진즉에 알았다
나의 18번을 네가 먼저 부를 때
나는 탬버린처럼 소심해져서 바닷바람을 맞는
화면 속 여자나 쳐다보는 것이다
사무실의자가 멈춰 서서 두리번거리는 두발짐승이라면
여기 놓인 소파의 기원은 파충류여서
언제 내 손을 물고 첨벙대는 무대로 끌고 갈지 모른다
그렇다면 부장 앞에서
피처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사원들은
악어새가 아니면 새끼 악어들,
내 예약곡 다음에 우선예약을 누르는 악다구니들,
너는 취해서 잘못 누른
옛 애인의 번호처럼 옆방에 들러 한 곡 부르고 온다
네 이웃의 마이크를 탐하다니
남의 손가락 사이에 타액과 DNA를 묻히고 오다니
나는 미러볼처럼 어리둥절해져서
세 번째 10분추가 안내문을 멀뚱히 쳐다본다
그제 부른 노래를 또 부르는 너
와우, 어디서 좀 놀았군요, 감상문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여기였음을 너는 모른다
나는 WHITE를 마시던 손가락으로
간주점프를 눌러 몰래 복수나 하는 것이다

영어 조기교육에 관하여

철들기 전에 영어를 배웠다 담장에서 배웠다
미선이는 내 꺼다 건들지 마라
'mine'은 광산이란 뜻이었다 여자는 노다지였다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알파벳을 다 외웠다 대문자로 외웠다
알파벳은 WXY로 끝나는구나
스승은 세로쓰기를 했다 삐뚤빼뚤했다
영어를 잘 하니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고등학교 때엔 A가
뒤집힌 양날도끼에서 왔다는 걸 알았다
감탄사였다 아이들은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무기로 썼지만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여자가 도처에 있었다
대학 때 처음 포르노를 보았다
남자나 여자나 퍽을 입에 달고 살았다
'fuck'은 '매우'란 뜻이었지만
남자가 쓰면 욕, 여자가 쓰면 사랑이었다
사회에 나와서야 BC를 제대로 이해했다
나는 여태껏 문법도 모르고 살았구나
부자 되시라고 여자가 속삭였지만
봉급날은 결제일과 함께 왔다
세계화와 여성상위 시대,
어디나 영어와 여자가 있었다
여자에 사로잡힌 영어의 몸,
그게 나였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연포탕 속의 낙지가 앗 뜨거, 앗 뜨거 하면서
냄비 바깥으로 손을 뻗는다 아니, 발이었나?
잠시 후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쫄깃한 육신을 탕 속에 흩뿌릴 테지만
그 전에 프리즌 브레이크
파이널 시즌을 시도하는 것이다 나도 한 때,
그런 탈출을 꿈꾼 적이 있었지
멸치육수가 흐를 듯 후덥지근한 숲속 빈터였다
뼈도 연골도 없이 그녀에게 매달렸지만
그녀가 앉은 벤치는
나박나박 썬 무처럼 너무 담백했다
우리 그냥 친구 하자고
우정이 애정보다 좋은 열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
그녀의 입은 청량고추만큼이나 매웠다
냄비 속 연옥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느끼고
낙지는 마지막 먹물을 뿜는다
눈앞이 캄캄해진 내게
슬라이스로 썬 마늘을 투척하는 그녀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네
우정과 정력의 모순형용 앞에서
후후 불며 나를 들이키는 그녀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파와 마늘 사이로 숨는 낙지와 나와 쑥스러운 쑥갓과
연포탕에는 그렇게뿐이 모여 있었다

부활절에 관하여

어머니, 월수금 오후 두 시마다 사지에 못 박히네
골고다로 가는 칠성판 위에 누워 골골 신음하네
이곳은 회생 한의원, 개량한복 입은 로마군병이
주변을 슬슬 돌아다니며 감시하네
어머니, 두 손과 발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을 돌아 나오네 주기도문도 가상칠언도
가 닿지 않는 심연이 몸 안에 있네
쥐며느리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고
아니 어머니, 언제 며느리가 된 거지요?
얘, 말도 마라 죽은 네 할머니가
손과 발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지 뭐니?
조만간 그 분과 낙원을 산책하겠구나
흥, 불굴의 어머니, 월수금 오후 세 시마다
박힌 못 탈탈 털고 일어나 부활하네
정말 살아나셨어요, 로마군병도 증언하네

궁정식 연애에 관하여

애인을 애마에 태워 밥 먹으러 갔지
식당을 지키는 풍선인간 하나,
호들갑스럽게 우리를 맞네 고삐를 맡기고 들어서자
전국에서 모여 든 기사들,
마상시합 전의 난전처럼 떠들썩하네
애인은 궁정식 연애의 주인공이 된 듯 들떠서
우아하게 손을 들어 메뉴를 가리키네
불고기백반, 저건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야
우리는 불의 시련을 통과할 거야
고등어자반, 저건 우리 경쟁자들의 운명이야
토막 난 채 소금에 절여진 패잔병이야
우리는 돌솥밥처럼 끓어올라
기사들 사이에서 사랑을 맹세했네
옆구리를 드러낸 자반 옆에서
달달한 불고기 국물 앞에서
기사들은 이쑤시개를 장창처럼 꼬나들고
혹은 자판기 커피를 성배처럼 받들고
청량리로 군자교로 혹은 장안평으로
너도나도 흩어졌네
잘 아시겠지만 이 기사담의 결말은 누룽지,
눌어붙은 밥알들이 책임지는
물에 불은 한 때의 고소함에 관한 이야기였다네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1

내 어머니가 회장으로 있는 한나회, 거기 소속된 권사들 중에는 성추행으로 쫓겨난 다른 교회 목사의 엄마도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말하길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뭐 하나님이 특별히 바지 벗기고 육봉을 때리는 변태도 아니고 제 스스로 발기인이 되어 피안으로 건너간 것인데

그 목사, 에스겔처럼 날마다 모로 누워 울었다고 하는데 "왼쪽 눈에서 흐른 눈물이 콧등을 타고 넘어 오른쪽 눈에서 나온 눈물과 만나기도"* 했던 건데, 그렇다면 콧등이 이쪽의 물길과 저쪽의 물길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했다는 얘긴데, 이봐 물을 건너라고 했더니 어째서 물을 건너게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금수장 모텔의 물침대 같은 것이었으려나? 작은 아기 하나가 출렁이며 차안으로 건너오는 바로 그 순간, 금수 같기도 한 그이와 금수강산 같기도 한 꽃무늬 벽지를 교대로 보는 슬픔 같은 것? 사방에 꽃들이 떠가는 눈부신 한낮에, 우리는 나란히 누워, 목사보다도 성스러워져서는……

* 에스겔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190일 동안은 왼편으로,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누워서 자야 했다.
* 「그대 있어야 할 자리에·2」(강연호)에서

조마루감자탕집에서

부장님은 이곳에 없다
눈발처럼 날리는 결재서류 너머에 있다
올해 처음 내린 눈처럼 그대는 깨끗한 서류를 밟고 왔다
그대의 자존심은 척추까지 부러졌다
봐라, 골수가 다 새어나온다
이건 눈물이 아니야
참이슬 먹은 그대 눈에 더러운 이슬이 맺혔다
그대의 얼굴은 우거지처럼 풀이 죽었고
그대가 유지했던 형체는 젓가락만 대도 무너진다
부장님에게는 골다공증이 없고
부장님의 허리는 젓가락보다 꼿꼿하다
화탕지옥이야, 마누라만 아니면 여기 안 있어
아내는 먼데서도 그대를 지탱해준다
눈발처럼 내미는 아내의 하얀 손,
그대는 금세, 끓는 수제비처럼 조금 부푼다
조금 부었다고 말해도 좋다
그대의 정신이 들깨처럼 천천히 풀어지는 동안
제 부피를 늘리다가 졸아붙는 국물 속에
감자만이 멀뚱멀뚱 놓여 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표정이다

오징어 나라의 오징어 왕

잘게 썰린 불특정다수의 오징어들이
첩, 첩,
소리 내며 한쪽으로 쏠린다
파도소리 같다
이곳은 오징어 나라
살아서도 대중이었던 오징어들이
다리, 몸통, 머리 구분 없이 자잘해져서
형광등 아래 모여 있다
초고추장과 바다 사이에서
우리도 분무기처럼 떠든다
우리는 우리가 뿜어낸 먹물이다
오징어는 다리와 몸통 사이에
머리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같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오징어들에게 배후가 있다면
심해에 사는 대왕오징어일 것이다
오징어 눈은 인간보다 잘 작동하는
고성능 카메라다
어쩌면 오징어들은 오징어 왕이 보낸
간첩들 아닐까
뭍에도 첩, 첩,
소리 내는 자잘한 자들이 산다고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이곳은 오징어 나라
형광등 아래 모여 우리는 환한 접시가 된다
여전히 주광성(走光性)이다

24시 양평해장국

내 앞에 앉은 그대는 방금 안사람과 헤어졌다
핸드폰을 닫는데,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보조키 걸어 잠그는 소리가 났다
그대가 다섯 번째 밥을 허겁지겁 떠 넣는 건
네 번째 끼니를 잊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금저축이다
첫사랑은 500cc 거품과 함께 사라졌고
독재자와 장사꾼과 모리배들은 불판 위에서 다 탔다
그대가 탁자를 탕, 치자
막걸리가 장마철 탁류처럼 솟아올랐다
친구들은 유수지로 물 놀러 가듯 빠져나갔다
저 인간 다시 만나나봐라…… 제법 격류였지
겨우 보내고 달래어 앉은 자리에서
찢긴 북어와 풀 죽은 콩나물 사이에서
그대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와 운다
고개 숙인 그대의 머리가 잡초 솎아낸 밭 같다
어린 남자로 위장한 그대 뒤에
구조조정이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대가
구직과 실직을 혼동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대도 안다
분별 있는 우리 사이로 분별 있는 새벽이 온다
그대는 느릿느릿 집으로 간다
그대는 헤어진 안사람이 다시 받아줄 거란 걸 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대는 자러 간다
야근과 당직을 마치고 퇴근하러 간다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마차 가본 게 언제인가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 견디고 있을 것이다
크기에 빗댄다면
대합탕 옆에 놓인 소주잔 같을 것이다
방점처럼, 사랑하는 이 옆에서
그이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그 마음처럼
참이슬은 조각난 조개의 조변석개를 안타까워할 것이다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는 들큼한 취객의 등이여,
당신도 오래 견딘 것인가
소주병의 푸른빛이 비상구로 보이는가
옆을 힐끗거리며
나는 일편단심 오리지널이야,
프레쉬라니, 저렇게 푸르다니, 풋, 이러면서
그리움에도 등급을 매기는 나라가
저 새벽의 천변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지만 혼자서는 끝내 가지 않을
혼자라서 끝내 갈 수 없는 나라가
저 피안에서 취객의 등처럼 깜빡이고 있을 것이다

야쿠르트 아줌마와 중국집 청년

행동반경이 좁다는 것은 뱅뱅뱅뱅뱅 돌아야 한다는 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말
ㅡ유홍준, 「중국집 오토바이의 행동반경에 대하여」

야쿠르트 아줌마는 초식성,
순한 짐승처럼 배급소에 말뚝을 박고는 동네를 맴도네
배급소와 아줌마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보이지 않는 줄 하나에 매여
온 마을을 돌면서 원주율을 만드네

파이다, 파이야
이건 살점을 갈아 넣은 조그만 음료야

중국집 청년은 투덜대길 좋아해서
소음기 뗀 오토바이를 몰지
배급소는 하나지만 중국집은 곳곳에 있어서
밤이 되면 취객 지나간 자리처럼
붉은 국물이 골목에 엎질러지네

짬뽕이다, 짬뽕이야
오는 광복절에는 서울 시내를 다 돌아야지

동그라미와 면발이 만나
그물 동그라미 아니면 동그란 그물이 되었네
온 동네 살점이 그 줄에 걸렸네
아줌마는 모르는 소식이 없고
청년은 안 가본 곳이 없네

거미줄에 걸린 벌새처럼
왕왕대면서
마을버스 한 대가 가다서다를 반복하네

애모

회상과 애모와 장미 가운데 어디가 좋을까?
애모로 가자 회상은 옛날 일이고
장미는 부담스럽구나 하지만 어디를 가든
너는 식탐이 심한 미녀를 만나게 되리라
오빠, 나 과일 먹어도 돼?
오빠, 나 오징어 한 마리만……
비음이 심한 청구서 뒤에 숨은 핑크빛 미녀들,
이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같은
아니 이십오 년 만인가? 어쩜, 몰라보게 달라졌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깨가 닿네
관촉사 은진미륵을 사모해왔는데 여기에도
구족원만한 미소가 있네
네가 그토록 애모했던 것, 그건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문 닫고 떠난 뒤에
다시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것
한 번 그래 보는 것
오빠, 아 해봐…… 청춘이 주는 미끼를 덥썩덥썩
받아먹는 너
가짜 양주나 홀짝이다가 기어이
제 눈물을 홀짝이는

도봉근린공원

얼굴을 선캡과 마스크로 무장한 채
구십 도 각도로 팔을 뻗으며 다가오는 아낙들을 보면
인생이 무장강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동계적응훈련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대한 지 몇 년인데, 지갑은 집에 두고 왔는데,
우물쭈물하는 사이 윽박지르듯 지나쳐 간다
철봉 옆에는 허공을 걷는 사내들과
앉아서 제 몸을 들어 올리는 사내들이 있다 몇 갑자
내공을 들쳐 메고 무협지 밖으로 걸어 나온 자들이다
애먼 나무둥치에 몸을 비비는 저편 부부는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을 닮았다
영역표시를 해놓는 거다
신문지 위에 소주와 순대를 진설한 노인은
지금 막 주지육림에 들었다
개울물이 포석정처럼 노인을 중심으로 돈다
약수터에 놓인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는 예쁘고
헤픈 처녀 같아서 뭇입이 지나간 참이다
나도 머뭇거리며 손잡이 쪽에 얼굴을 가져간다
제일 많이 혀를 탄 곳이다 방금 나는
웬 노파와 입을 맞췄다
맨발 지압로에는 볼일 급한 애완견이 먼저 지나갔고
음이온 산책로에는 보행기를 끄는 고목이 서 있으니
놀랍도다, 이 저녁의 평화는 왜 이리 분주한 것이며
요즈음의 태평성대는 왜 이리 쓸쓸한 것이냐

시라는 열차는 꼬리칸의 힘으로 달린다

1.

어린 시절 나는 여러 번 나를 유배 보냈다. 또래 아이들과의 모임에서 빠져나와 골방에 틀어박히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개는 책과 관련되어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최초의 골방행(行)은 열 살 무렵이었다. 다이제스트 판『일리아드』를 읽은 뒤에 장기알과 바둑알을 모아 혼자 트로이전쟁을 벌이고 놀았다. 이년 후 우리 집에 소년소녀 세계위인전기전집이 들어왔다. 에디슨에서 헬렌 켈러까지 스무 권이 넘는 책을 읽느라 동네 친구 전부를 잃었다.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는『삼국지』에 빠졌다. 중고등학교 내내 머릿속에서 내가 아는 아이들을 장수로 둔갑시켜 대하역사소설을 썼다. 그때는 성경에 빠져 살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성경책이 내게는 국영수였다.

책은 나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골방으로 밀어 넣은 주범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역설적으로 세상을 만났다. 책 하나에 세상 하나. 한 책은 제가끔 구축된 말들의 질서, 생각의 질서, 세계관의 질서 하나씩을 품고 있다. 그게 상징이다. 그러나 그 상징들에는 숨쉴 틈이 많지 않았다.『일리아드』에는 변덕스러운 신이 주관하는 생사가 있었고,『삼국지』에는 음모와 모략이 지배하는 권력투쟁이 있었다. 성경은 아무리 손 내밀어도 잡히지 않는 천국과 그걸 따른다는 자들이 연출한 지옥이 동거하는 곳이었고, 위인전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언제 죽었다'로 간추려지는 무미건조한 성공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시가 찾아왔다. 자연발생적인 감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시끄럽고 죄의식으로 허덕이던 지친 영혼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위안이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밤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내가 쓴 시들을 펼쳐 읽곤 하던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는 자식이 없지만, 노트에 끄적거린 그 시들은 순산이건 난산이건 간에 내 자식들이 분명했다. 혼자 할 수 있는 놀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시와 수음. 후자가 허탈감으로 끝났다면 전자는 득남, 득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득템 정도는 된다. 시를 쓴 덕분에, 고등학교 이후로 삶의 궤적을 일직선으로 그을 수 있었다.

2.

1989년 12월, 처음 신춘문예에 투고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이었다. 첫 연애가 참담하게(모든 사랑의 끝은 참담한 것이니까) 끝난 후에, 입대선물로 내 자신에게 시인 이름이 박힌 명함을 주고 싶었다. 12월 26일인가, 27일인가 모르는 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혁웅 씨죠? 네 전데요. 두근거렸다. ……신문사입니다……를 기다렸으나 그 남자는 기자가 아니었다. 1월 8일 입대영장 나왔습니다. 1990년이 되자 나는 군인이 되었다. 그해 1월은 내내 폭설이었다. 연병장 전체가 작업장으로 변했다. 훈련소에서 3당 합당 소식을 들었다. 신춘문예 열병은 1997년이 되어서야 끝나게 된다.

3.

1997년에 등단하고 2000년에 첫 시집을 냈다. 10년 동안의 습작시절이 두루두루 섞여 있는, 두루치기 같은 시집이다. 세상물정을 잘 몰랐으므로 내 시집 가운데 가장 때가 덜 탄 시집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소수의 독자들은 그 시집 이후의 내 시력을 낙원추방의 역사로 보기도 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긴 해도 두 번째 시집이 실낙원 이야기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가족은 넓은 마당에 살았다.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일대, 번지 앞에 산(山)이 붙는 동네였다. 넓은 마당이라고 해봐야 마을버스가 겨우 회차하는, '빠꾸'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기도 하는, 조그만 삼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 좁고 고불고불한 길들이 지금도 기억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집은 1~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다. 집주인이 고성방가가 특기인 임차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동네의 윗집 아랫집을 오르내렸다. 둘째, 그 산자락에 위치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담임선생을 따라서 혹은 담임선생이 되어서 동네방네 심방을 다녔다. 셋째,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마음에 둔 그녀가 생겼다 사라졌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골목길을 익혔다.

내게는 그곳이 세상이었다. 그러던 곳이 두 번째 시집을 쓸 무렵에 재개발지구가 되었다. 폐허가 왕(王)이라는 게 실감났다. 죽음도 그럴 것이다. 삶이 아무리 생생하고 숨탄것들을 순풍산부인과처럼 낳는다 해도 결국엔 죽음의 영토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다. 모든 집의 운명이 그럴 테지만, 산동네 재개발지구만큼 몰살의 운명을 맞는 곳은 없다. 모든 집이, 그 집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진다. 그걸 시집에 옮겨오려고 했다. 가난한 낙원은 사라지고 말로 지은 바벨탑만 남았다. 『마징가 계보학』이다. 다른 곳을 다녀보니 작은 동네는 어디나 약국 앞, 교회 앞, 넓은 마당, 병원 앞, 버드나무슈퍼…… 같은 지명들을 품고 있었다. 저 시집이 품은 사연들이 보편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4.

한 글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 "내게 서정의 대상은 산과 나무, 들과 꽃이 아니었다. 내 살던 동네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저 시멘트 담과 축대, 높낮이 심한 계단들, 벌레들이 자주 나오는 작은 방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산동네 풍경을 보면, 뭔가가 울컥 하고 올라온다. 거기서 나는 만화영화와 플라스틱으로 조립한 모형 비행기, 뽑기, 번데기 리어카, 다방구, 딱지, 소년소녀 위인전기전집, 주사(酒邪)와 첫 사랑, 교회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프로야구와 애마부인, 선데이 서울과 살았다. 나는 대중문화 코드에서 서정을 발견했다. 거기에 내가 몸과 마음을 붙여두고 살았던 까닭이다. 서정은 서정적인 대상, 이를테면 자연 사물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서정은 발화하는 자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걸 자연 사물에 의탁해온 것은, 그 사물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게 없었다. 지금도 나는 꽃과 나무와 새를 노래하지 않는다. 거기에 관해서 거의 아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한때는 도감을 뒤지며 시를 쓴 적도 있다.

다정큼나무나 분꽃, 조팝나무 같은 이름들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컨셉이다.” 이게 『마징가 계보학』을 쓴 이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서정이다.

5.

어렸을 때의 나는 교회돌이였지만 지금의 나는 유물론자다. 하지만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자는 아니다. 신성(神性)이 있다면 몸에 거해야 한다고 믿는, 감각을 떠나서는 어떤 황홀경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유물론자다. 타자를 영접하는 체험이 아니라면 엑스터시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감각에는 환대의 윤리가 깃들어 있다. 그것은 제 논리와 감정으로 상대를 성형하거나 정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절대적으로 다른 그 절대성,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에야 감각이 신성의 봉헌물이 된다. 그것의 다른 이름은 물론 사랑이다. 연애시집이란 별명이 붙은 세 번째 시집 『그 얼굴에 입술을 대다』를 이런 믿음으로 썼다. 시를 쓰면서 일부러 감정을 제한하려고 애썼다. 감각과 감정은 다른 것인데, 감상과는 더더욱 다른 것이다. 감상을 차단해야 타자의 얼굴이 떠올라온다고 믿었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감각이 일러주는 받아쓰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돌이켜보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잠재적인 독자들의 기대를 나는 배반했다.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려 했다면 적어도 제목을 그렇게 정해선 안 되었다고, 이제 와서야 생각한다.

6.

1990년은 내게도, 우리에게도 암담한 시절이었다. 나는 시인이 되는 대신에 군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대신에 군사정권을 연장하는 거대한 기득권 체제 아래 놓였다. 어렵게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열매가 도로 도로(徒勞)가 되었다. 어쩌면 그 합당의 주역은 셋을 곱해서 제로가 되는(0×3) 이상한 게임을 고안했던 게 아닐까? 역사는 잠깐의 성공과 무수한 반동으로 점철된다는 것을 나는 지난 번 대통령 치하에서 배웠다. 촛불을 절이 아닌 사찰로 그것도 불법(佛法)이 아닌 불법(不法)으로 불어서 끄고, 청계천에서의 이상한 복개공사를 전국의 모든 강으로 확장했다. 광화문 앞에 쌓은 산성과 불타오르던 용산과 우리 삶에 강요하던 신라면보다 매운 신산고초와 우리 지갑에 강요하던 정산서가 있었다. 허깨비들이 주인이 되어서 실제의 주인들을 허깨비로 만드는 세상이었다. 소문에 소문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믿었다. 『소문들』을 그렇게 썼다. 세상에 떠도는 말들을 채집해서 떠도는 허깨비들에 합당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한 대담에서 이 시집에 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집을 4부로 구성했는데, 1~3부가 「소문들」, 「야생동물 보호구역」, 「드라마」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무협지 수준의 깡패논리에 지배 받는다는 것(1부), 인간의 본질이 동물의 모습이나 양태로 설명된다는 것(2부), 개별자들의 관계가 고작 드라마의 문법으로 포착된다는 것(3부)을 폭로하고 싶었죠. 최근 몇 년 동안 힘 있는 자들의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이, 또 천민자본주의의 그물에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에 대한 울분이 꽉 차서 압력밥솥 안의 증기처럼 터져 나오곤 했

죠.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집 원고를 보내면서 뒤표지 글에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어요. 좋은 세상이 와서 이 시집의 비판이 무능력해지는 때가 어서 왔으면 해요." 그때는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여하튼 『소문들』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

7.

2012년에 다섯 번째 시집 『애인은 토막 난 순대처럼 운다』를 냈다. 후기에 "세속이 그 지극한 경지 안에서 스스로를 들어" 올리길 바란다고 썼다. 지금 내 시의 화두는 '세속'이다. 내가 생각하는 세속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 세속은 항상성을 품고 있다. 권력자가 아무리 교체된다고 해도, 왕조와 공화국이 바뀐다 해도 나라의 질료인 민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민중들이 영위하는 삶의 형식이 바로 세속이다. 어느 권력자도 민중을 이기지는 못한다.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만 권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국열차』에서 열차를 추동하는 힘은 엔진이 아니라 꼬리칸 사람들이다. 꼬리가 머리를 밀어주어서 열차는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세속은 영생의 다른 이름이다.

둘째, 세속은 자신을 구원한다. 자신 바깥에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세속은 알기 때문이다. 세속은 성스러움의 반대에 놓인 지경이 아니라 성스러움을 출현시킨 바탕이다. 성이야말로 세속의 자식일 터, 어미를 부정하고 고결해지는 성스러움이란 애초에 있지 않다. 세속은 우리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들어 올리는 자가 동력이다. 셀프 서비스로 자신을 살려낸다는 것, 멋지지 않은가?

셋째, 세속은 슬픔과 웃음을 결합한다. 지극한 형용모순의 상태가 세속이다. 예전 어른들은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고 놀리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어른이 된다는 얘기다. 유머야말로 세속이 갖는 자기정당성이다. 시골 어르신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신의 슬픔마저 웃음의 원천으로 삼는 넉넉한 힘이 바로 주름의 힘이다.

8.

늙음과 사랑, 순간과 영원, 추억과 무한, 성과 식. 이런 모순형용이 세속의 주제다. 늙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죽음에 저항한다는 것, 아직 죽음에 몸을 넘겨줄 때가 아니라는 결기다. 그 반대편에 사랑이 있다. 로맨스그레이야말로 구원의 한 형식이다. 사랑은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고정시켜주는 스냅사진이다. 첫사랑이야말로 내게 무수하게 돌아오는 영원이 아닌가? 그것은 추억이기도 하다. 무한한 도돌이표를 우리는 추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먹는다'는 행위 속에 집약된다.

9.

욕망으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전제만 있다면, 사랑하는 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동어반복이야말로 모든 시에 내재한 동력일 것이다. 내 시의 꼬리칸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산다. 그리고 시라는 열차는 바로 그이들의 힘으로 달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여보, 밀어!(=사랑해!)"

성북의 문인들(소개)

강진호> 문학박사이며 성신여대 국문과 교수로 있다. 주요저서로『탈분단시대의 문학논리』(2001),『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2004)가 있고, 편저로『국어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2007),『총서 '불멸의 력사'를 읽는다』(2009),『조선어독본』(5권)(2010) 등이 있다.

김경미>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비망록」이 당선되었으며, 2005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2007년 한국방송작가협회 라디오작가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8월~11월 미국 아이오와 국제창작레지던스(IWP)에 참가하였다. 원주 한라대학교 등에 출강했으며, 2011년부터 경희 사이버대학에서 심리학을 주제로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KBS-1FM 작가로 일하고 있다. 시집《쉿, 나의 세컨드는》《고통을 달래는 순서》《밤의 입국 심사》, 산문집《바다, 내게로 오다》, 심리 에세이《행복한 심리학》을 출간하였다.

김경욱>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베티를 만나러 가다』『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장국영이 죽었다고?』『위험한 독서』『신에게는 손자가 없다』, 장편소설『아크로폴리스』『모리슨 호텔』『황금 사과』『천년의 왕국』『동화처럼』『야구란 무엇인가』가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다.

김광섭> 1905년 9월 22일 함경북도 경성군 어대진 송신동 148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한약방을 경영하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가문이 기울면서 온 가족이 함께 북간도로 이주했다. 1917년에 경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에는 서울 중동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6년 와세다대학 제1고등학원 영문과에 입학해 당시 불문과 2학년생이던 이헌구(문학평론가)를 만나 함께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27년에는 와세다대학교 조선인 동창회보인 ≪R≫지에 시 <모기장>을 발표해 시인의 길에 들어섰다. 1929년에는 제1고등학원을 졸업하고 와세다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다. 1932년에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부터 모교인 서울의 중동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부임해 후진 양성에 힘을 썼다. 이 시기에 '극예술연구회'에 가담해 활동하면서 서항석(徐恒錫), 함대훈(咸大勳), 모윤숙(毛允淑), 노천명(盧天命) 등의 문인들과 교유를 활발히 했다. 이때부터 각종 신문에 시와 평론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1938년에는 첫 시집인 ≪동경(憧憬)≫을 발간했다. 1941년에는 수업 시간에 창씨개명을 공공연히 반대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3년 8개월 동안의 옥고를 치렀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민족진영 문인들과 '중앙문화협회'를 창립했으며, 1946년에는 '전조선문필가협회'의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민주일보≫의 사회부장을 맡아 언론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듬해에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

회'의 출판부장과 ≪민중일보≫의 편집국장을 맡았으며, 일시적으로 미 군정청의 공보국장을 맡기도 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으로 취임했으며, 이듬해에 제2시집 ≪마음≫을 발간했다. 1950년에는 문예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문학≫ 창간호를 발간했으나 6·25동란으로 중단했다. 1951년 대통령 공보 비서관을 사임하고, 1952년에는 대전에서 발간되는 ≪대한신문≫의 사장에 취임했다. 1952년에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부임했고, 다음 해에는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 중앙위원으로 취임했다. 1955년에는 '한국자유문학자협회'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56년에는 문예지 ≪자유문학≫을 창간해 문단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1957년에는 제3시집인 ≪해바라기≫를 발간했다. 1958년에는 ≪세계일보≫ 사장에 취임했으며,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시집 ≪서정시집≫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 1959년 전국 '문화단체총연합회'의 상임 최고 위원과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 부위원장에 재선되었다. 1961년에는 '한국 문인협회' 발기 준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이사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64년에는 많은 정성을 기울였던 ≪자유문학≫이 운영난으로 휴간되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혈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965년에는 뇌출혈로 입원해 치병을 하다가 이듬해에는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를 발간했다. 이후 1971년에는 제5시집 ≪반응(反應)≫을 발간하고, 1974년에는 ≪김광섭 시 전집≫을 발간해 문학적 생애를 총 정리했다. 1976년에는 자전적인 문집 ≪나의 옥중기≫를 발간하고 그 이듬해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기택> 1957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가뭄>과 <꼽추>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1995년 제14회 김수영 문학상, 2001년 제46회 현대문학상, 2004년 제11회 이수문학상, 2004년 제4회 미당문학상, 2006년 제6회 지훈문학상, 2009년 상화시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태아의 잠≫, ≪바늘구멍 속의 폭풍≫, ≪소≫, ≪껌≫, ≪갈라진다 갈라진다≫ 등을 출간했다.

김나정> 상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석사과정을,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3년『동아일보』신춘문예 단편부문「비틀스의 다섯 번째 멤버」, 2007년 문학동네 신인상 평론부문「성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 2010년『한국일보』신춘문예 희곡「여기서 먼가요?」가 당선되었다. 저서로『내 지하실의 애완동물』(문학과지성사, 2009) 『꿈꾸는 건축가, 가우디』(이룸, 2004) 『신데렐라가 백설공주보다 아름다운 이유』(21세기 북스, 2007) 『멸종 직전의 우리』(작가정신, 2014)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이룸, 2007) 『백남준』(이룸, 2012) 『토토르의 아빠, 미야자키 하야오』(이룸, 2013) 『몽룡을 사랑한 춘향』(생각의 나무, 2008), 공동저서는『공포』(이룸, 2006) 『사막에서 온 여자』(북인, 2010) 『2010년 신춘문예 희곡당선집』(연극과 인간, 2010) 『희곡작가 인큐베이팅 작품집』(연극과 인간, 2011) 『수업』(황소북스, 2011) 『설렘』(랜덤하우스 중앙, 2011) 『가족 이야기』(서울북스, 2011) 『Thirty』(작가정신, 2011) 『B성년』(2013) 등이 있다. 2014년 현재 고려대, 순천향대, 중앙대 강사로 있다.

김명인(비평가)> 1958년, 강원도 도계의 한 탄광 사택에서 태어났으나 네 살부터는 내내 서울에서 살아왔다. 글쓰기의 재미와 함께 세상의 이치에 눈을 떠 가던 중학 시절부터 막연히 비평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첫해 1977년 봄부터 비합법 학생운동 그룹에 몸을 담아 박정희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세력에 대항하는 투쟁에 20대 청춘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투쟁선언문이나 격문을 쓸 때마다 존재론적 고양감에 몸을 떨었고 그 뜨겁고도 휘황한 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인생은 일찌감치 무거워졌다. 1979년에는 짧게,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좀 길게 두 번의 감옥살이를 했다. 늦은 졸업을 했던 1985년, 졸업논문을 요약한 글을 발표해서 평단에 이름을 올리고 비평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7년에 역시 격문을 쓰는 기분으로 발표한 「지식인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이라는 글로 이른바 '민족문학주체논쟁'을 일으켰고 그 파장을 보며 다시 한 번 글 쓰는 일의 엄중함과 그 그림자의 길이와 무게를 절감할 수 있었다. 1992년, 시대의 피로와 환멸에 지쳐 「불을 찾아서」라는 글을 남기고 비평을, 아니 비평을 통한 투쟁을 중단하고 대학원에 들어가 김수영에 대한 석사논문과 조연현에 대한 박사논문을 써서 1998년에 학위과정을 마쳤고, 2000년부터 다시 비평을 쓰지만 동시대의 문학과 문학장의 성격을 수락할 수 없게 되어 문학비평을 점점 멀리하다가 2005년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교수직을 얻은 뒤로는 후생을 가르친다는 일의 엄중함이라는 미명 뒤에 숨어 사실상 평단에는 폐업계를 내다시피 하였다. 1999년부터 인천에서 나오는 시사문화계간지 <황해문화>의 편집주간으로 일해 오면서 문학 없는 비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학 없는 글쓰기가 때론 적막하긴 하지만 내 글쓰기가 바로 문학의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환멸의 문학 혹은 문학의 환멸을 견디며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묶어 낸 책으로는 <희망의 문학>(1990), <잠들지 못하는 희망>(1997), <불을 찾아서>(2000), <김수영, 근대를 향한 모험>(2002), <자명한 것들과의 결별>(2004), <조연현, 비극적 세계관과 파시즘 사이>(2004), <환멸의 문학, 배반의 민주주의>(2007) 등이 있다.

김복희>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시)로 등단했다.

김사인> 1956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서울대 국문과에서 공부했다. 1981년 『시와 경제』 동인 결성에 참여하면서 시를 발표했으며, 1982년부터는 평론도 쓰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이 있고, 『박상륭 깊이 읽기』 『시를 어루만지다』 등의 편저서가 있다. 신동엽문학상,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5년 현재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상혁>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9년 《세계의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이 집에서 슬픔은 안 된다』가 있다.

김인환>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9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1979~2011)를 거쳐 2015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다. 1972년에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왕문사)을 한국 최초로 번역해 낸 이후 프로이트와 라캉을 집중적

으로 공부하여 1985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37호)에 라캉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논문 <언어와 욕망>을 게재하였다. 김환태평론상(2001), 팔봉문학상(2003), 현대불교문학상(2006), 대산문학상(2008), 김준오시학상(2012)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최제우 작품집≫(형설출판사, 1978), ≪문학과 문학 사상≫(열화당, 1978), ≪문학 교육론≫(평민사, 1979), ≪상상력과 원근법≫(문학과지성사, 1993), ≪동학의 이해≫(고려대출판부, 1996), ≪비평의 원리≫(나남출판, 1999), ≪기억의 계단≫(민음사, 2001), ≪다른 미래를 위하여≫(문학과지성사, 2002), ≪의미의 위기≫(문학동네, 2007), ≪한국 고대시가론≫(고려대출판부, 2007), ≪현대시란 무엇인가≫(현대문학, 2011), ≪The Grammar of Fiction≫(Nanam, 2011), ≪언어학과 문학≫(작가, 2012) 등과 역서로 ≪에로스와 문명≫(나남출판, 1989), ≪주역≫(고려대출판부, 2010), ≪고려 한시 삼백수≫(문학과지성사, 2015) 등이 있다.

김재혁>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독문학과 교수. 시인. 지은 책으로 『바보여 시인이여』,『릴케와 한국의 시인들』,『릴케의 예술과 종교성』,『릴케의 작가정신과 예술적 변용』,『내 사는 아름다운 동굴에 달이 진다』(시집), 『아버지의 도장』(시집)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릴케전집』,『릴케. 영혼의 모험가』, 『노래의 책』,『로만체로』,『넙치』, 『푸른 꽃』,『겨울 나그네』,『책 읽어주는 남자』,『환상동화』,『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변신』,『회상록』외 다수가 있다.

김채원> 1946년 경기도 덕소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1975년 『현대문학』에 단편소설 「밤 인사」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겨울의 환」으로 제1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초록빛 모자』『봄의 환』『달의 몰락』『가득찬 조용함』『달의 몰락』『지붕 밑의 바이올린』,중편소설 『미친 사랑의 노래』, 장편소설 『형자와 그 옆사람』『달의 강』, 장편동화 『장이와 가위손』『자장가』, 자매 소설집 『먼 집 먼 바다』『집, 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가 있다.

김혜순> 1979년 계간 『문학과지성』을 통해 시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또 다른 별에서』『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어느 별의 지옥』『우리들의 陰畵』『나의 우파니샤드, 서울』『불쌍한 사랑 기계』『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슬픔치약 거울크림』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현대시작품상, 소월시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1년 현재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호영>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2002년 『시와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오두막집에 램프를 켜고』『그대 아직 사랑할 수 있으리』, 평론집 『몽상 속의 산책을 위한 시학』『무명화를 위한 변명』 등이 있고, 그 외에 『한국현대시인논고』『현대시 속의 문화풍경』『시를 찾아 떠나는 여행』『서정주』『한국근대기 낭만주의 전개연구』『한국현대시의 층위와 진폭』 등이 있다. 2014년 현재 한성대학교 교수로 있다.

서영인> 1971년생. 2000년 창비 신인평론상을 수상하며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몇

군데 대학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강의하는 한편, 계간『실천문학』편집위원으로 한국 문학의 현재를 고민하고 있다. 평론집『충돌하는 차이들의 심층』,『타인을 읽는 슬픔』,『문학의 불안』을 냈다.

서종택> 전남 강진 출생으로 고려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로 입상한 이후, <외출> <선주하 평전> <백치의 여름> 등의 창작집과 <한국 군대소설의 구조> <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한국 현대소설사론> 등의 저서를 펴냈다. 홍익대, 고려대 교수를 역임했다.

손보미> 1980년 서울 출생. 2009년『21세기문학』신인상에 단편소설「침묵」이,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담요」가 당선되어 등단. 소설집『그들에게 린디 합을』이 있다. 2012년 젊은작가상 대상, 2013년, 2014년 젊은작가상, 제46회 한국일보 문학상, 제21회 김준성문학상을 수상했다.

신경림> 193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민족예술인총연합 의장과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 임했으며 2015년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시집《농무》,《새재》,《길》,《가난한 사랑 노래》,《쓰러진 자의 꿈》,《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뿔》, 산문집《삶 의 진실과 시적 진실》,《민요기행》1·2,《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1·2 등이 있다.

신미나> 1978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다.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싱고, 라고 불렀다』(창비, 205)가 있다.

양윤의>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동국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다. 2006년 '중앙신인문학상' 신춘문예(평론)로 등단했으며 비평집으로『포즈와 프러포즈』가 있다.

오정국> 1956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중앙대 예술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현대문학》추천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저녁이면 블랙홀 속으로』,『모래 무덤』,『내가 밀어낸 물결』,『멀리서 오는 것들』과 평론집『시의 탄생, 설화의 재생』,『비극적 서사의 서정적 풍경』을 펴냈다.《서울신문》기자,《문화일보》문화부장을 거쳐 현재 한서대 인문사회학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다.

오현종>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9년『문학사상』신인상에 단편소설「중독」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강의전담교수로 일하고 있다. 소설집『세이렌』『사과의 맛』, 장편소설『너는 마녀야』『본드걸 미미양의 모험』『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거룩한 속물들』『달고 차가운』 등이 있다.

윤대녕> 1962년 충남 예산 출생. 단국대 불문과 졸업. 1990년『문학사상』으로 등단. 소설집『은어낚시통신』『남쪽 계단을 보라』『많은 별들이 한곳으로 흘러갔다』『누가 걸어간다』『제비를 기르다』『대설주의보』『도자기 박물관』, 중단편선집『반달』, 장편소설『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추억의 아주 먼 곳』『달의 지평선』『미란』『눈의 여행자』『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산문집『그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어머니의 수저』『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등.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김유정문학상> <김준성문학상> 수상. 2014년 현재 동덕여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강백> 194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다섯>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1970년대 억압적인 정치·사회 상황에서 권력의 폭압성을 알레고리 장치를 통해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1982년 동아연극상, 1983년 한국희곡문학상, 1985년 베네수엘라 제3세계 희곡경연대회 특별상, 1986년 대한민국문학상, 1996년 대산문학상, 1998년 서울연극제 희곡상, 2000년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 ≪이강백 희곡집≫(전 7권, 평민사)이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파수꾼>, <영월행 일기>, <느낌, 극락 같은> 등이 있다

이명수> 1945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건국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심상사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시집『바람코지에 두고 간다』(문학세계사, 2014) 등이 있다.

이승원>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0년 계간《문학과사회》여름호에「정육점의 예수」외 3편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으로『어둠과 설탕』(2006),『강속구 심장』(2011)이 있다.

이윤학>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1990년 동국대 국문학과 재학 중《한국일보》신춘문예에 시가 당선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먼지의 집』『붉은 열매를 가진 적이 있다』『나를 위해 울어주는 버드나무』『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꽃 막대기와 꽃뱀과 소녀와』『그림자를 마신다』『너는 어디에도 없고 언제나 있다』『나를 울렸다』 장편동화『왕따』『샘 괴롭히기 프로젝트』『나는 말더듬이예요』『나 엄마 딸 맞아?』를 펴냈다. 현재 〈시힘〉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수영문학상(2003) 등을 수상했다.

이재훈> 1972년 강원 영월 출생. 1998년 <현대시> 신인상으로 등단. 2012년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을 수상. 시집으로 <내 최초의 말이 사는 부족에 관한 보고서>(문학동네, 2005), <명왕성 되다>(민음사, 2011), 지은 책으로 <현대시와 허무의식>(한국학술정보, 2007), <딜레마의 시학>(국학자료원, 2008), 인터뷰집 <나는 시인이다>(팬덤북스, 2011)가 있다. 중앙대, 경기대, 열린사이버대, 숭의여대에서 글쓰기와 문학을 강의했다. 2012년 현재는 건양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진명> 1990년 <작가세계>에 <저녁을 위하여> 외 7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일연문학상, 서정시학 작품상을 받은 바 있으며, 시집으로《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집에 돌아갈 날짜를 세어보다》《단 한 사람》《세워진 사람》 등이 있다.

이태준> 호는 상허尙虛.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했다. 휘문고보 4학년 때 동맹 휴교 주모자로 퇴학당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1925년 도쿄에서 단편 <오몽녀>를 <조선문단>에 투고해 입선했다. 1927년 도쿄 조치대 예과를 중퇴한 후 귀국했다. 1929년 개벽사에 입사, 조선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33년 구인회에 참가했으며,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심리를 다룬 작품을 발표했다. 1940년경 일제의 압력으로 친일 활동에 동원되었고, 1941년 모던 일본사가 주관하는 제2회 조선예술상을 수상했다. 1943년 절필 후 낙향했다가 해방을 맞아 서울로 올라왔다. 해방 공간에서 좌

익 작가 단체에 가입해 주도적으로 활동, 1946년 <해방 전후>로 제1회 해방문학상을 수상하고 그해 여름에 월북했다. 6·25 전쟁 중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 종군 활동을 했다. 1956년 구인회 활동과 사상성을 이유로 숙청당한 이후 정확한 행적은 알려진 바 없으며 사망 연도도 불확실하다. 1934년 첫 단편집 《달밤》 발간을 시작으로 한국 전쟁 이전까지 《까마귀》《이태준 단편선집》《이태준 단편집》《해방 전후》 등 단편집 7권과 《구원의 여상》《화관》《청춘 무성》《사상의 월야》 등 장편 13권을 출간했다.

장영수> 1947년 강원대 원주에서 태어났다. 1973년 계간「문학과지성」봄호에 시를 발표해 시단에 데뷔했다. 서울대 사대 불어과와 동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한아(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부 재학 중인 2005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등단했다. 2007년 장편소설『달의 바다』로 제12회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나를 위해 웃다』, 장편소설『리틀 시카고』 등을 출간했다.

조연호> 1969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94년《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시집 <죽음에 이르는 계절>, <저녁의 기원>, <천문>, <농경시>, <암흑향>과 산문집 <행복한 난청>이 있다. 현대시작품상, 현대시학작품상을 수상했다.

조용미> 1962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1990년《한길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일만 마리 물고기가 山을 날아오르다》《삼베옷을 입은 자화상》《나의 별서에 핀 앵두나무는》, 산문집《섬에서 보낸 백 년》 등이 있다.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했다.

조재룡>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파리8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을 거쳐 2015년 현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비평』지에 문학평론을 발표하면서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며, 시학과 번역학, 프랑스와 한국 문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평론을 집필하였다. 지은 책으로『앙리 메쇼닉과 현대비평: 시학, 번역, 주체』,『번역의 유령들』,『시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번역하는 문장들』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앙리 메쇼닉의『시학을 위하여 1』, 제라르 데송의『시학 입문』, 루시 부라사의『앙리 메쇼닉, 리듬의 시학을 위하여』, 필립 라브로의『스테파니의 비밀노트』, 알랭 바디우의『사랑예찬』, 조르주 페렉의『잠자는 남자』 등이 있다.

조지훈> 본명 동탁東卓. 1920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혜화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였다. 1939년 ≪문장≫에『고풍의상』『승무』『봉황수』 등이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등단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 해 목월과 처음 교유하였다. 1946년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청록집』을 펴냈다. 경기여고 교사, 고려대학교 문과대 교수,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초대소장,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에 '한용운 전집 간행위원회'를 만해의 지기 및 후학들과 함께 구성하였다. 1968년 48세의 나이로 기관지 확장으로 영면하였다. 시집으로『풀잎단장』『조지훈시선』『역사歷

史 앞에서』『여운』 등이 있고, 수필집 『돌의 미학』, 평론집 『한국문화사서설』이 있다.

최동호> 1948년 8월 26일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했다. 경남대 국어교육과 전임강사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를 거쳐 198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부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명예교수 겸 경남대 석좌교수로 있다. 1976년 시집 ≪황사 바람≫으로 등단, 이후 ≪아침 책상≫(민음사, 1988),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민음사, 1995), ≪공놀이하는 달마≫(민음사, 2002), ≪불꽃 비단벌레≫(서정시학, 2009), ≪얼음 얼굴≫(서정시학, 2011), ≪수원 남문 언덕≫(서정시학, 2014) 등 시집을 냈다. 197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꽃, 그 시적 형상의 구조와 미학>이 당선되면서 평론활동을 시작, 시론집 ≪현대시의 정신사≫(열음사, 1985), ≪불확정 시대의 문학≫(문학과지성사, 1987), ≪평정의 시학을 위하여≫(민음사, 1991),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문학동네, 2000), ≪현대시사의 감각≫(고려대출판부, 2004), ≪진흙 천국의 시적 주술≫(문학동네, 2006), ≪디지털 코드와 극서정시≫(서정시학, 2012),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서정시학, 2013) 등을 출간했다. 그 외에 합동 시집 ≪샘물 속에 바다가≫(문학사상사, 1987), ≪지상에는 진눈깨비 노래가≫(민음사, 1992), 자료집 ≪소설어 사전≫(공편, 고려대출판부, 1998), ≪정지용 사전≫(고려대출판부, 2003), ≪김수영 사전≫(공편, 서정시학, 2012), ≪백석 문학 전집≫(공편, 서정시학, 2012), ≪정지용 전집 1 시≫·≪정지용 전집 2 산문≫(서정시학, 2015), 산문집 ≪히말라야와 정글의 빗소리≫(작가, 2005), 평전 ≪그들의 생애와 문학, 정지용≫(한길사, 2008), 역서 ≪문심조룡≫(유협 지음, 민음사, 1992), 박사 학위 논문을 개정한 ≪한국 현대시와 물의 상상력≫(서정시학, 2010) 등이 있다. 1991년 소천이헌구비평문학상, 1996년 현대불교문학상(시부문)과 시와시학상 평론상, 1998년 김환태평론문학상, 1999년 편운문학상(평론 부문), 2006년 대산문학상(평론 부문), 2009년 혜산박두진문학상과 고산윤선도문학상(현대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창근>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로 올라와 문학과 연극을 사랑하는 동료들과 어울려 청춘의 아름다운 한 시절을 보냈다. 2001년 우리극연구소의 새 작가, 새 무대를 통해 희곡 〈봄날은 간다〉를 무대 위에 올리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제38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2008년 제16회 대산창작기금을 받았다. 공연 작품으로 〈봄날은 간다〉, 〈서산에 해 지면은 달 떠온단다〉, 〈12월 이야기〉, 〈13월의 길목〉, 〈바람이 분다> 등이 있다.

최치언> 1970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200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하면서 문단에 등장했고, 2003년 우진창작상 장막 희곡 부문에 당선, 극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2011년 대산문학상 희곡상을 수상했다. 대표 희곡에는 <코리아, 환타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언니들>, <잠자는 숲 속의 옥희> 등이, 시집으로 <설탕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 <어떤 선물은 피를 요구한다> 있다.

하응백>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희대 국문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경희대

학교 국문과 조교수, 국민대학교 문창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으로 당선,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문학으로 가는 길》《낮은 목소리의 비평》《김남천 문학 연구》 등이 있으며, 편저로《황동규 깊이 읽기》《한승원 삶과 문학》 등과 대담집《친구야, 이제 다리를 건너거라》 등이 있다.

하재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했다. 2008년 2월 '1930년대 조선문학 담론과 조선어 시의 지형'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죠지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방문연구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양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2012년 현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 유학 시기 정지용 시의 특성과 창작의 방향」, 「문장의 시국 협력 문학과 전선문학선」, 「이상(李箱)의 가외가전(街外街傳)과 글쓰기에 관한 의식 연구」 등이 있다. 연구와 함께 시를 쓰고 있으며, 시집으로 『라디오 데이즈』, 『세계의 모든 해변처럼』이 있다.

한영옥> 1950년 서울 출생으로 성신여대 국문과,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73년 『현대시학』 등단. 시집 『비천한 빠름이여』 『아늑한 얼굴』 등. 한국예술비평가협회상, 천상병시상, 최계락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등 수상. 성신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용운> 속명은 유천(裕天)이며, 계명은 봉완(奉玩)이다. 만해(萬海)는 법호이고, 용운(龍雲)은 법명이다. 선승으로서 불교계의 개혁과 근대화에 노력했으며, 또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가로 활약하는 등 식민지 시기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3·1운동에 백용성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로서 참여했고,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초대 경성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일제 말기 지식인 대부분이 변절, 전향할 때도 끝까지 지조를 지켰다. 또한 잡지 ≪불교(佛敎)≫의 편집인, 발행인으로서 불교의 근대화를 위한 언론 활동을 했다. ≪조선 불교 유신론≫ 외에 ≪불교대전≫, ≪십현담주해≫ 등이 대표적인 불교 관련 저술이다. 또한 시 <님의 침묵>을 비롯해 다수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

황광수> 1944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났고,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민중서관, 을유문화사, 지식산업사, 한길사 등의 출판사에서 20년 가까이 편집 일에 종사하였고, 월간 『사회와사상』, 계간 『민족지평』, 『내일을 여는 작가』, 『실천문학』 주간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작가회의에서 편집위원장, 문화정책위원장, 민족문학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계간 『자음과모음』 편집위원, 국민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겸임교수이다. 1981년 「현실과 관념의 변증법－金光燮論」을 발표하며 비평에 입문, 30년 남짓 평론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평론집으로 『삶과 역사적 진실』, 『길 찾기, 길 만들기』 등이 있고, 저서로 『소설과 진실』, 편저로 『땅과 사람의 역사』가 있으며, 역서로 『왜곡되는 미래』 등이 있다. 2004년 『길 찾기, 길 만들기』로 대산문학상(평론부문)을 수상하였다

황현산>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로 대표되는 프랑스 현대시를 연구하며 문학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밤이

선생이다』『말과 시간의 깊이』『말라르메의 “시집”에 대한 주석적 연구』『잘 표현된 불행』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파스칼 피아의 『아뽈리네르』, 도미니크 랭세의 『프랑스 19세기 시』(공역) 『프랑스 19세기 문학』(공역), 드니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집』, 기욤 아폴리네르의 『알코올』, 발터 벤야민의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공역),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 등이 있다. 팔봉비평문학상, 대산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번역비평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았다.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5년 현재 같은 학교 명예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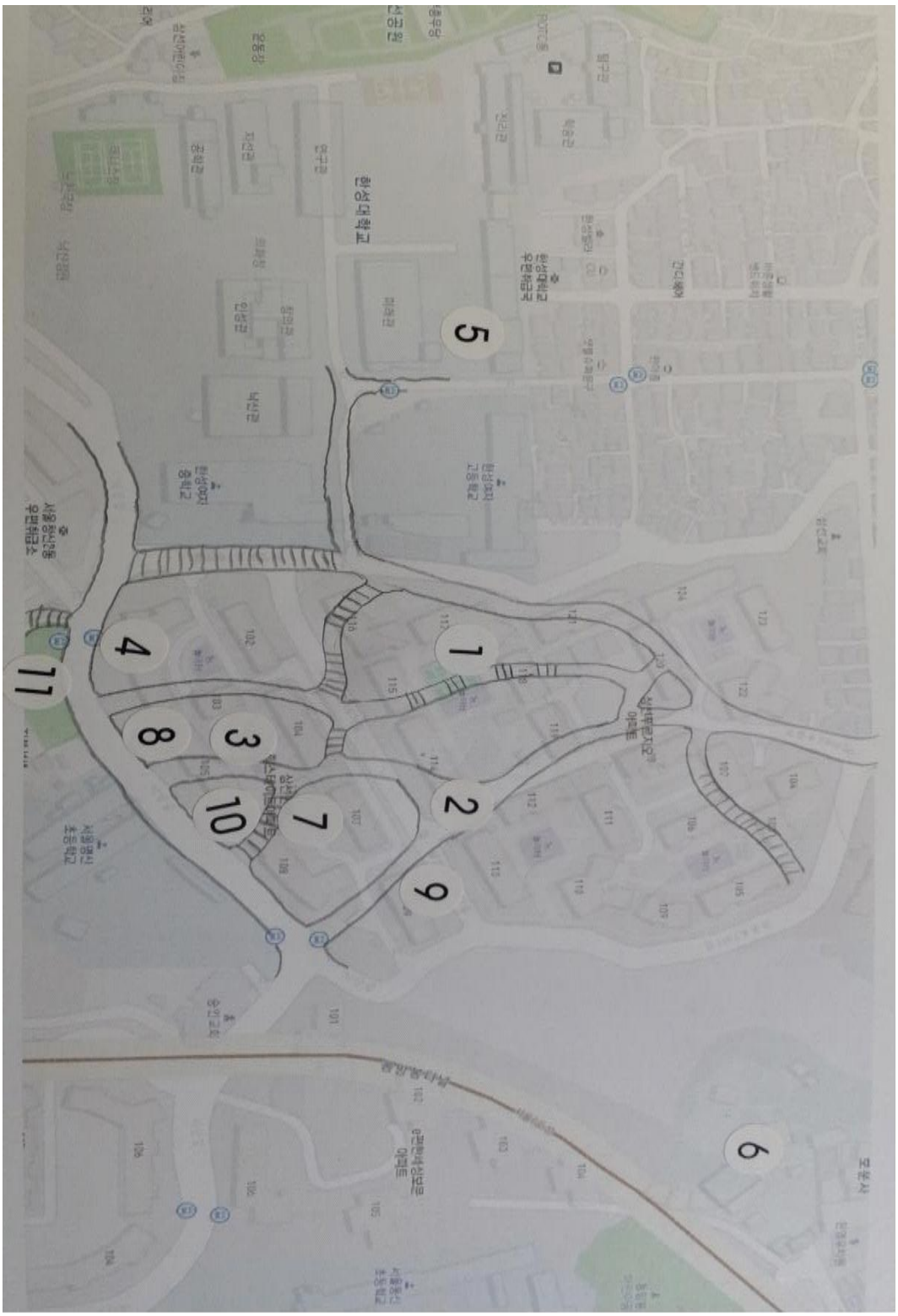


그림 1 삼선동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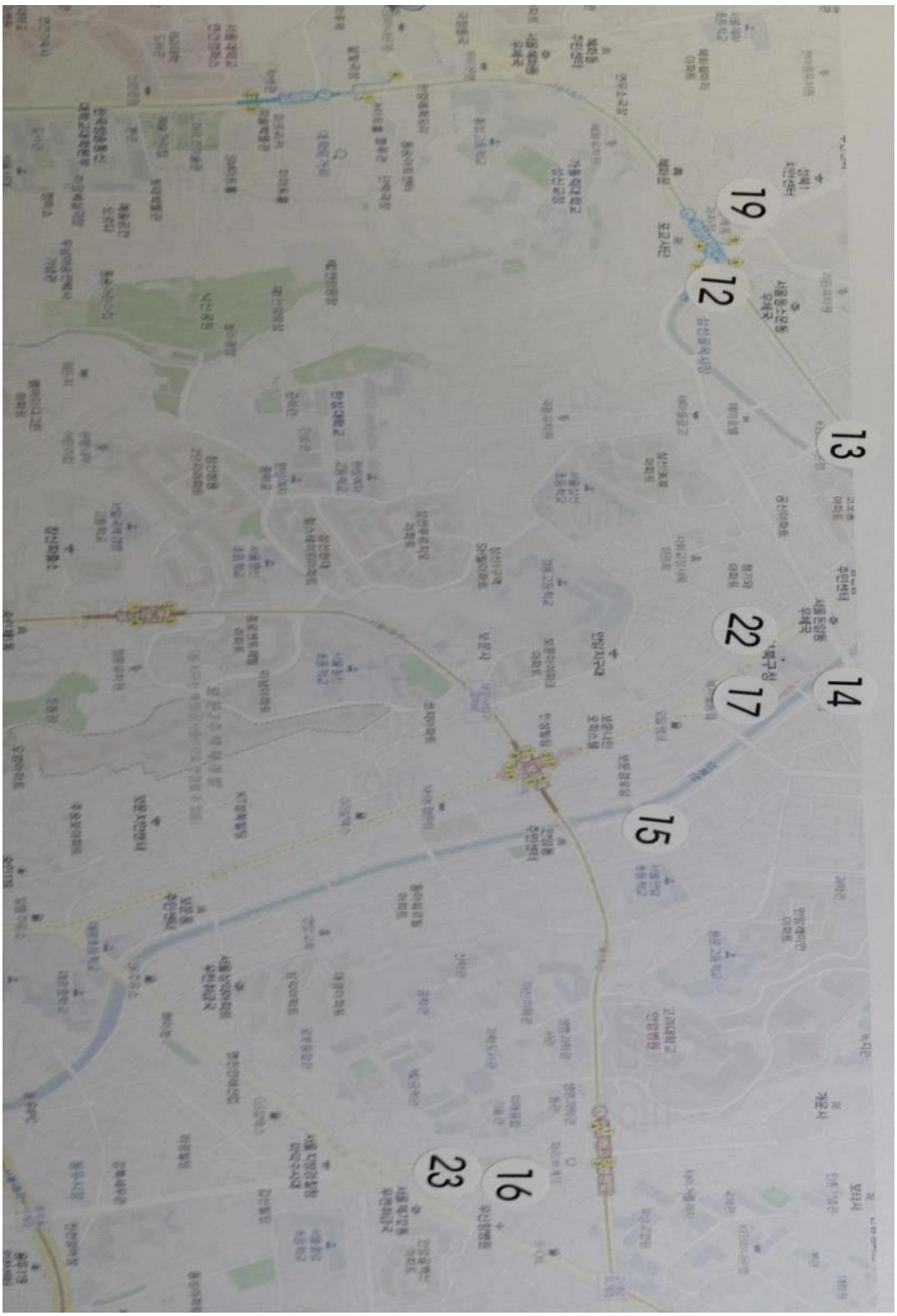


그림 2 성북동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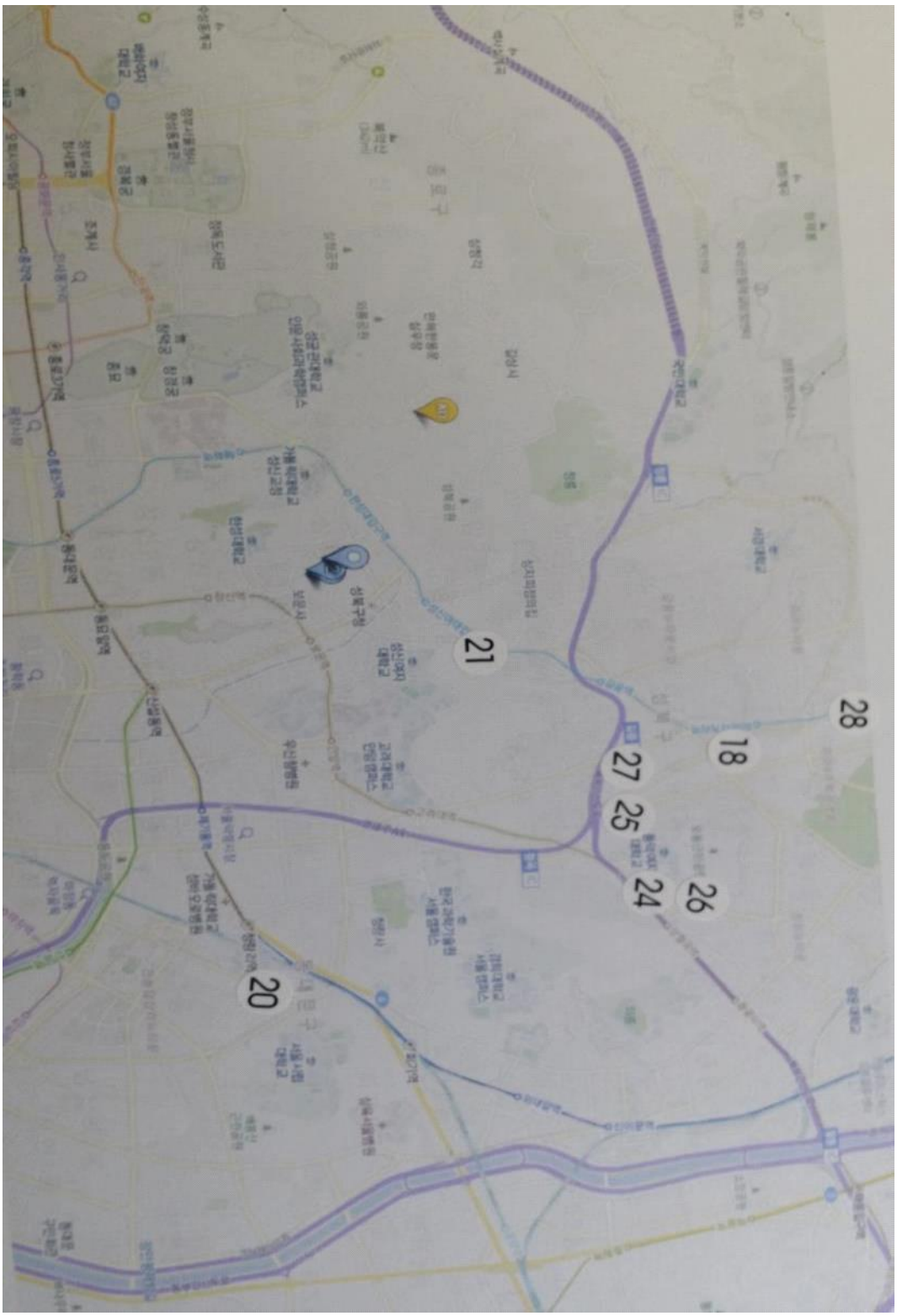


그림 3 성북구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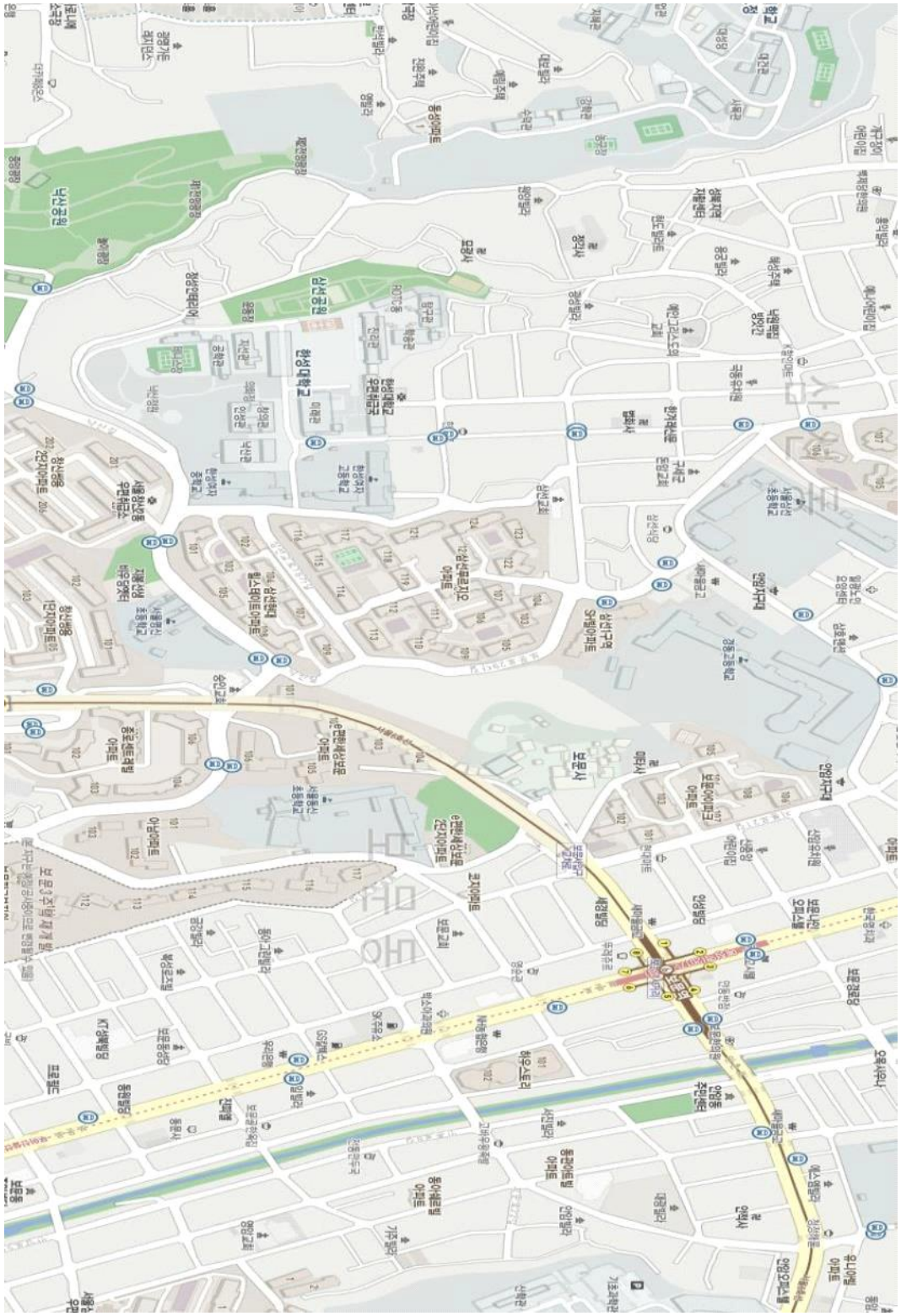


그림 4 마징가 현재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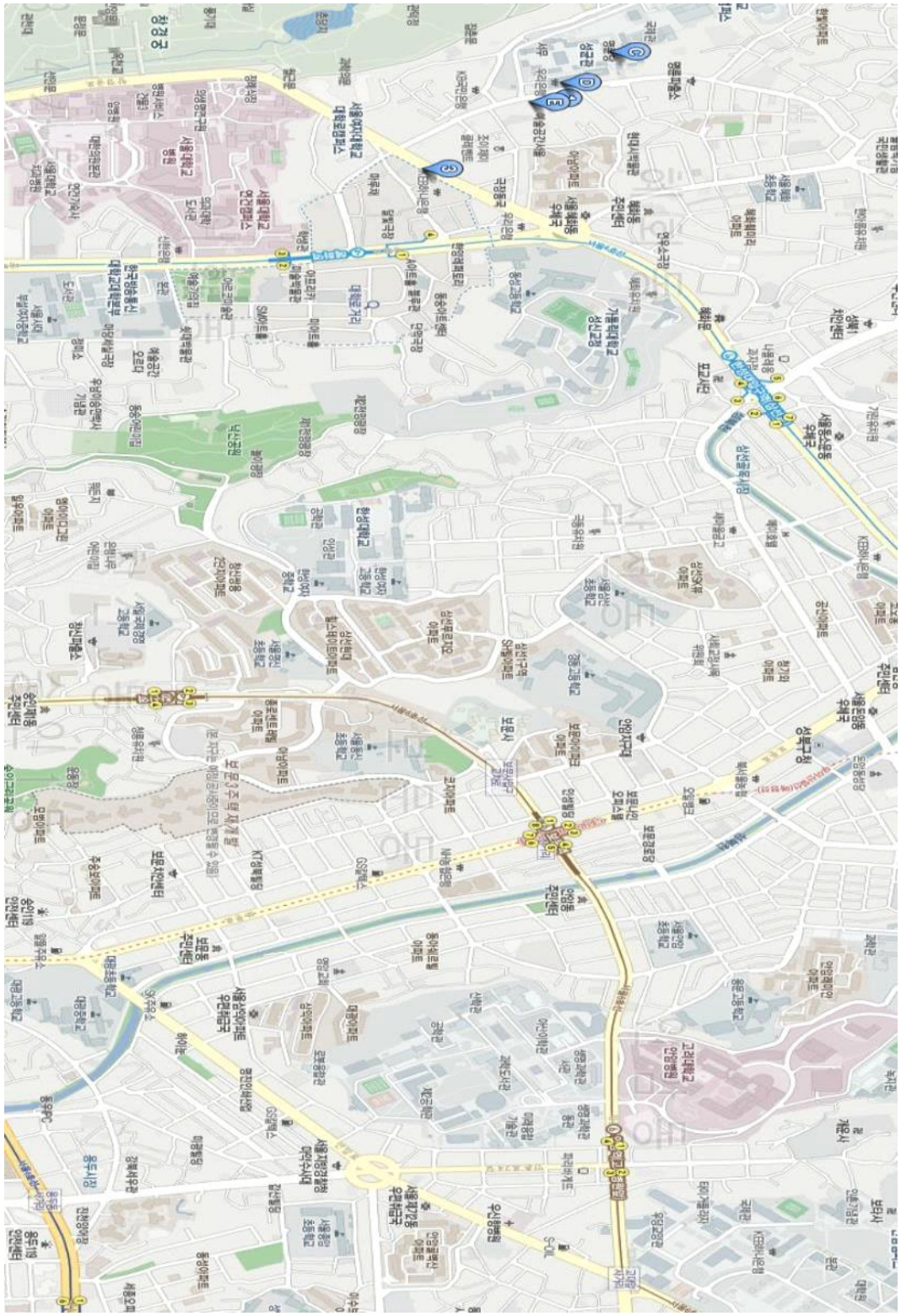


그림 5 마징가 현재지도-2

그림 6 마징가 현재지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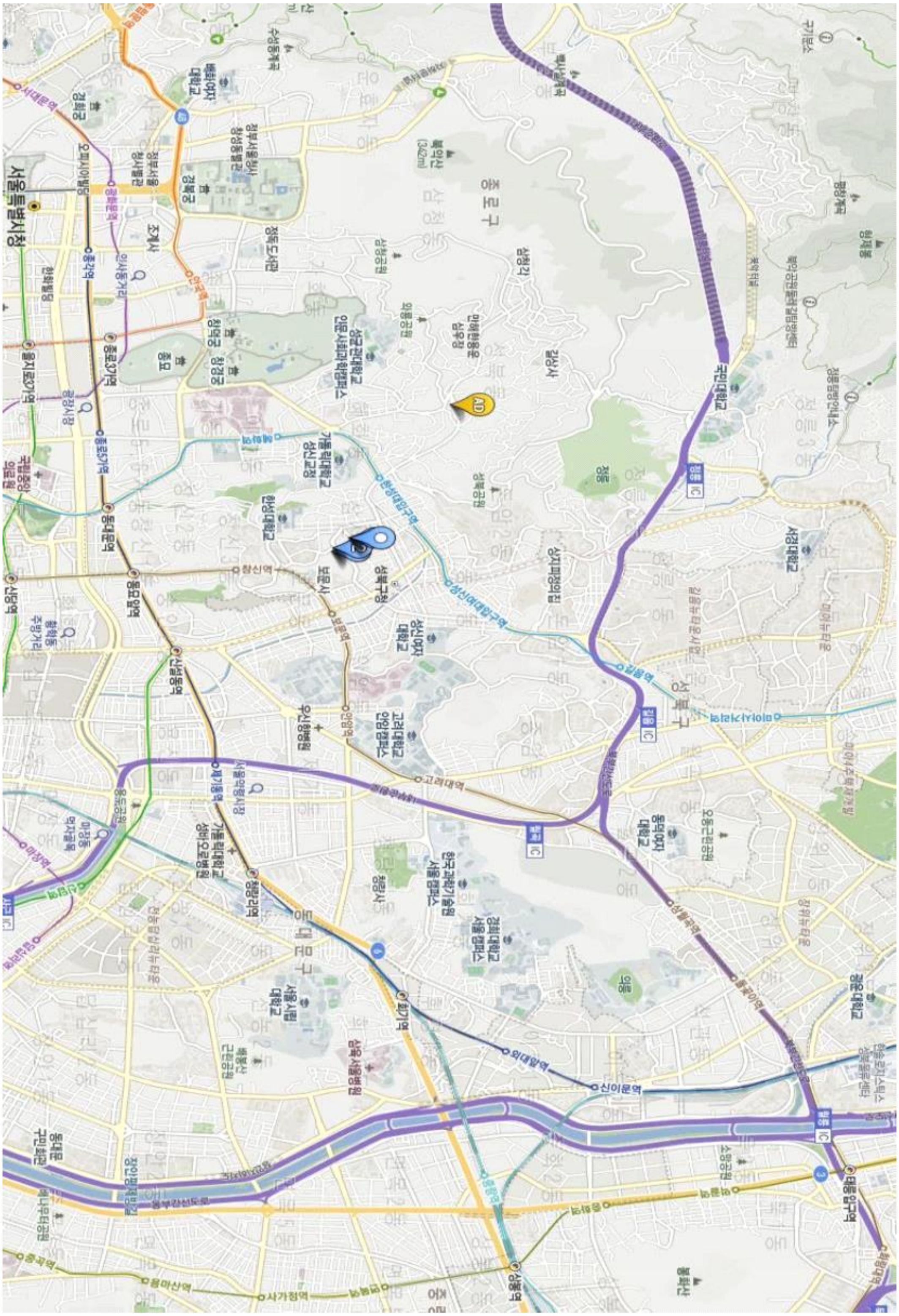


그림 7 마징가 현재지도-4